

박사학위논문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과
안보 대비방안 연구

A Research on North Korea's Complex Military
Threats and Security Preparedness in the 21st Century

지도교수 박 영 택

대진대학교 대학원
정치사회심리학과

권 찬 주

2025년 7월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과 안보 대비방안 연구

A Research on North Korea's Complex Military
Threats and Security Preparedness in the 21st Century

지도교수 박 영 택

이 논문을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대진대학교 대학원

정치사회심리학과

권 찬 주

2025년 7월

권찬주의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진종구 인

위원 김재엽 인

위원 유판덕 인

위원 문계성 인

위원 박영택 인

대진대학교 대학원

2025년 7월

국 문 요 약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과 안보 대비방안 연구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정치사회심리학 전공
권 찬 주

본 연구는 갈수록 복잡화되는 북한의 위협 양상과 한국의 군사 안보 대응전략을 분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분쟁,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하이브리드전을 포함한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을 주된 군사 전략으로 고수하며, 드론과 사이버전을 접목한 복합적 공격 양상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은 전면전 개시 직후 전력을 집중하여 수도권을 제한적으로 점령하거나 한반도를 30일 이내에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WMD 전력, 기계화 및 경량화 전력,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확보하고 있다. 이 전략은 미군 증원 이전의 신속한 승리를 노리는 전형적인 기습 개념이다.

한편, 하이브리드전은 전통적 전쟁 방식과 비정규전을 혼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되는 전쟁 방식이다. 하마

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구사한 하이브리드전에서처럼, 북한도 재래식 무기와 특수전 병력, WMD, 사이버전, 심리전, 국내 간첩망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예측불허의 다중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전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분야로,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 정부와 군의 지휘통제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을 통한 해킹, 군사정보 유출, 금융·교통 인프라 마비 시도, 심리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이 존재한다. 드론전 또한 북한이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수단으로, 2022년 12월 무인항공기가 서울 영공을 침투한 사건은 드론전이 현실적 위협임을 입증한 사례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 과잉 수준이며, 경제난 속에서도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육군은 15개 군단과 200여 개 사단·여단을 포함해 약 128만 명 규모로 편성되어 있고, 미사일·장사정포를 통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특수전 병력은 개전 시 땅굴, 능선 등을 통해 남한 후방을 기습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이다. 북한은 이를 협상의 지렛대, 전술적 수단,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항공기·미사일을 통한 핵심 군사시설 타격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은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와 생물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비대칭 무기는 재래식 대응으로 방어가 어려운 위협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군사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드론전과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군사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차원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전통 위협은 사회, 인권, 경제, 에너지, 환경, 사이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종합적 안보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안보는 현재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테러, 비정규전 등 복합적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자원의 통합 미흡, 민-군 간 협력훈련 부족 등으로 인해 하이브리드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안보 전략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분리해서 대비하기보다, 통합적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전과 테러에 대한 민·군 통합 훈련체계 강화, 사이버 방어체계 고도화, 드론전 대응능력 확보, 그리고 WMD 및 생화학 무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통해, 한국 안보전략이 단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통합적·전략적 대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술 진화와 위협의 복잡성에 대응하여 통합방위체제 강화와 예측 중심의 안보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주제어: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전, 드론전,
재래식 위협, WMD 위협, 생화학무기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고찰	3
3. 연구 방법 및 목차 구성	11
II. 이론적 고찰	15
1. 군사력의 개념과 군사전략의 수립과정 및 의미	15
가. 군사력의 개념	15
나. 군사전략의 수립과정과 실행 의미	20
2.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론의 실체와 위협	24
3. 4차 산업혁명과 군사적 위협의 확장	32
4. 하이브리드전과 북한의 예상 운용전략	38
III. 북한의 군사체제와 대량선제기습공격 위협	45
1. 북한의 군사지휘체계와 장단점 진단	45
2. 북한의 군사력 건설과정과 전쟁준비	51
3.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실체와 위협	55
4. 사이버전 능력과 드론 위협 등	60

IV. 북한의 핵무장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69
1. 북한의 핵무장의 의미와 배경 및 활용 전망 분석	69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기반구축·본격 개발/고도화 추진	77
3. 북한의 핵무장 위협 실체	82
4.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과 국제통제체제	90
V. 결론: 북한의 복합적 안보위협과 우리의 대비방안	96
1. 연구결과	96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97
3. 북한의 복합적·실체적 안보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략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12

표 목 차

<표 1> GFP의 2024년 주요국 Power Index 순위	17
<표 2>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의 주요 구성 요소	24
<표 3> 남북한의 4차 산업혁명 SWOT 분석	35
<표 4> 하이브리드전의 주요 특징	38
<표 5> 북한군의 당 통제 및 단일군사체제의 전/평시 장단점 분석	49
<표 6> 북한의 시대별 군사력 건설 주요 내용	52
<표 7> 북한의 군사력 실체와 남북한 군사력 비교(2022.12 현재)	56
<표 8> 북한 핵무장의 파급 및 영향 요인	70
<표 9> 북한의 핵무장 배경 및 활용 전략 진단	75
<표 10> 북한의 핵무장 기반구축 및 은폐단계	78
<표 11> 북한의 핵무장 본격 개발/고도화 단계	81
<표 12> 북한 핵무장 위협 실체	83
<표 13> 유엔 군축조직과 주요 기능	93
<표 14> 군축 및 비확산 관련 국제레짐 현황	94

그림 목 차

[그림 1]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절차	12
[그림 2]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위협과 안보대비방안 연구 체계도	13
[그림 3] 군사력 구성요소 3분류	19
[그림 4] 북한의 군사전략 체계	21
[그림 5] 주체군사사상 개념 체계도	23
[그림 6] 북한군 지휘 및 당 통제 체계	45
[그림 7] 북한 군부의 당 통제 및 군사지휘체계 영향요인	47
[그림 8] 북한의 3대 정권별 핵전략	77
[그림 9] 북한의 탄도미사일 보유 현황	85
[그림 10] 생화학무기 피해 모습	91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 안보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충돌, 미중 갈등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 상태인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문항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 ① 북한의 복합적 안보위협을 구성하는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
- ② 북한은 기존의 대량선제기습공격 전략에 부가하여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가?
- ③ 북한의 사이버전과 드론전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④ 우리는 북한의 복합적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가?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현재 정규 병력은 약 128만 명으로, 육군은 15개 군단, 84개 사단 등을 보유하고 있고, 전차 4,300여 대, 장갑차 2,600여 대, 방사포 550여 문, 미사일 발사대 100여 기 등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해군은 전투함정 420여 척과 잠수함 70여 척을, 공군은 전투기 810여 대와 헬기 29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예비전력으로는 약 762만 명의 인원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총동원체제를 반영한다.¹⁾ 또한 북한은 사이버전, 드

론, 테러 등 비대칭 전력도 강화하여 우리 안보에 복합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WMD 위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7년까지 핵무기 242기, ICBM 수십 기, 고농축 우라늄 645kg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위협·제한적 사용·전면전·한미 이간·확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²⁾.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며 핵, 사이버, 드론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군사기술이 정밀화되며 북한도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전과 대량선제기습공격론을 분석틀로 삼는다. 북한은 4대 군사노선과 병진노선을 바탕으로 전력을 휴전선 인근에 집중해 선제공격 준비를 해왔으며,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전으로 초기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³⁾

본 연구자는 앞에서 거론한 연구쟁점을 논의하고 연구 분석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개 분야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 ① 대량선제기습공격론과 하이브리드전 발전과정과 응용 양상 분석
- ② 북한의 정규전 및 비정규전 능력과 위협수준 진단
- ③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핵고도화 실제 및 위협 분석
- ④ 북한의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한 다각적 대비방안 모색

1) 국방부, 『국방백서 2022』(서울: 국방부, 2023), p. 334.

2) 「중앙일보」, 2021년 4월 14일자, 아산정책연구소와 랜드연구소 공동의 연구 결과인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보고서 인용 보도.

3) 박영택,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실행 가능성과 전개 양상,”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2011년 겨울, pp. 95-122.

2.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의 핵심주제는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위협과 우리의 안보 대비 방안으로서 선행연구는 목차에 따라 ①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과 하이브리드전, ② 4차 산업혁명의 군사분야 영향요인과 드론 및 사이버전의 위협, ③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 ④ 북한의 핵무장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그리고 ⑤ 한국의 안보 대비방안 등 5개 분야를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은 전쟁 초기 단계에서 미군 증원 이전에 전력을 집중하여 전후방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수도권 또는 한반도 전역을 30일 이내에 점령하려는 개념에 기반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타격 능력, 기계화·기동화·경량화된 전력, 그리고 후방 침투를 위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다.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전역의 혁명과업 완수 및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으며⁴⁾, 6·25전쟁의 패배 경험을 반영하여 주요 전력을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하고, 군중 및 병종부대가 통합된 단일군 체제 하에서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 중심의 전쟁 지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⁵⁾. 권양주(2020)의 선행연구는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의 개념과 실행 방식, 지휘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선행연구 중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 및 하이브리드전 분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드론 및 사이버전 위협, 재래식 군사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구체적 위협 양

4) 권양주, 『북한군사의 이해』(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155-175; 김광현, “북한의 제한전 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군사전략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1호(2023), pp. 251-253.

5) 권양주, 앞의 책, pp. 176-198; 이민룡,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4), pp. 54-69.

상,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 대비방안에 대한 언급은 미흡한 편으로 복합적 위협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흡한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하이브리드전은 적이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전투 형태를 동시에 통합하여 수행하는 전략으로, 아측의 취약점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집중 공략하는 전쟁 양상이다. 이 개념은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며,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로켓 및 미사일을 사용하고, 심리전과 이념전을 병행하며, 상대 전략의 약점을 활용한 대응 전략을 전개하였다⁶⁾. 헤즈볼라는 장기간 훈련을 통해 의지와 숙련도를 갖춘 전투요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시 근교에 매복하거나 민간인 사이에 은거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⁷⁾. 북한 역시 재래식 전력과 WMD, 특수전 병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 수행 가능성이 존재하며, 평시 테러, 주요시설 파괴, 요인 암살, 사이버 공격, WMD를 활용한 대남 도발 등 다양한 비정규전 수단을 동원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⁸⁾.

둘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군사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드론과 사이버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비전통 안보위협은 정치·군사·외교 등 기존의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분화하거나 새롭게 부상한 위협으로, 사회, 인권, 경제, 식량, 에너지, 환경, 테러, 사이버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비전통 안보위협은 4차 산

6) 한주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본 우리 군의 기습 대응 방안,” 「한국국가전략」, 제25호(2024. 7), pp. 154-163.

7) Frank G. Hoffman,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Virginia: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pp. 35-42.

8) 이장욱,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주요 이슈와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외교」, 제148호(2024. 1), pp. 113-116.

업혁명에 의해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 성격, 시급성, 전통적 안보의 변형, 질적 변화, 불확실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⁹⁾.

첨단 기술의 발전은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들의 군사력을 더욱 첨단화하고 다양화시키는 기반이 되며, 미래 전쟁 양상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로는 정밀 유도무기의 등장에 따른 정밀 타격 가능성의 증대, 유도 시스템을 갖춘 무기에 의한 고비용 전차의 효용성 저하, 인공위성과 공중 정찰체계, 컴퓨터 기반의 첨단 감지장치로 인한 대형 전투장비의 은폐 곤란 등이 있다. 또한 항공모함의 전략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 제기, 수상전투함의 취약성 노출, 전략폭격기와 정밀 유도폭탄의 중요성 증대, GPS 활용의 확산, 스텔스기와 무인항공기(UAV), 우주공간 활용의 증대 등이 미래전의 주요 양상으로 부각되고 있다¹⁰⁾. 사이버전은 전장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의 공격이 가능하며, 추적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폭탄메일 등 공격 방식도 다양하며, 대상은 개인부터 국가 전산망까지 포괄한다. 사이버안보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군사안보와 더불어 국가 기술력 경쟁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안보의 중대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¹¹⁾.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위해 집중하고 있으며, 평시와 전시를 막

9) 박용훈,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 건설방향,” 「군사논단」, 제103호(2020년 가을), pp. 186-192; 서상국 외, “제4차 산업혁명기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시스템 혁신방향: 소요창출을 위한 전투발전체계 혁신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2017년 봄), pp. 190-192.

10) George Friedman·Meredith Friedman, 권재상 역, 『전쟁의 미래』(서울: 자작, 2001); 이근, “정보혁명에 따른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동아시아 신질서: 새로운 도전과 한국의 방안,” 「전략연구」, 2001. 3, pp. 56-60.

11) 조성열,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 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2013), pp. 121-125.

론하고 국가 및 군의 핵심 지휘통신 체계를 공격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제3국을 경유한 해커 형태의 사이버 공격, 군 C4ISR 체계에 대한 바이러스 유포와 비밀자료 해킹, 국가 기간통신망(금융, 교통, 물류, 통신)의 마비 시도 등이 예상된다. 또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선전선동과 역정보 유출을 통한 심리전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¹²⁾

드론전은 다양한 성능의 드론이 전시 다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드론은 자체중량 150kg 이하를 무인비행기, 그 이상을 무인항공기로 정의하며, UAV는 무인 원격조종기를 뜻한다. 군사용 드론은 걸프전 이후 정찰과 공격 기능이 급속히 발전했으며, 인명손실 최소화, 전투 효율 증대, 레이다 회피, 경제적 손실 감소, 원거리 작전 가능 등 장점이 크다. 그러나 인력 비용 증가와 기상 악화 시 운용의 취약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¹³⁾ 드론 시스템의 3대 요소는 비행체, 무선 통신 기술, 지상 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무선통신을 통한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도청, 해킹, 스푸핑, GPS 신호 위조, 재밍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¹⁴⁾. 북한도 드론을 대남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며, 2022년 12월 무인항공기 5대가 서울과 인근 지역 상공을 약 7시간 비행해 안보 위협을 야기한 바 있다¹⁵⁾.

박용훈(2020) 및 조성열(2013)의 선행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군사 분야 영향요인과 드론 및 사이버전의 위협 항목에 대해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인 서술을 담고 있어 이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깊이와 폭을 충분히 확

12) 정동, “사이버전 양상과 북한의 위협,” 「인문사회21」, 제13권 6호(2022), pp. 4697-4699, 4701-4703.

13) 편석준·외, 『왜 지금 드론인가』(서울: 미래의창, 2015), pp. 11-104; 하종기·외, 『드론의 충격』(서울: e 비지북스, 2016), 19-33;

14) 하종기·외, 위의 책, pp. 145-186.

15) 2022년 12월 17일자 국내 언론 보도 자료 참고.

보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변화, 사이버전과 드론전의 특징, 북한의 실제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점이 강점이다. 그러나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과 하이브리드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 북한의 핵무장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한국의 안보 대비방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부족하여, 전체 연구 틀에서 이들 항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북한의 전체 군사전략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북한은 과도한 병력과 장비를 운용하며 주민 삶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성계열 ICBM을 포함한 KN-02, SCUD, 노동 등 다양한 미사일 전력으로 정부, 군 지휘부, 미군기지, 주요 공항 및 항만 등을 광범위하게 타격할 수 있다. 장사정포는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과 군사시설을 집중 공격하며, 화학탄을 활용해 인명 살상과 지역 오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¹⁶⁾ 북한의 20만 특수전 병력은 개전 직후 땅굴과 능선을 이용해 침투하며, 국가·군사 목표 타격, 병참선 차단, 증원 및 후송 작전 방해 임무를 수행한다. 해상에선 잠수정과 상륙정을 활용해 수도권과 항만을 기습 공격하고, 기뢰 부설과 어뢰 공격으로 해상 교통로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 침투는 헬기와 경항공기로 이루어진다.¹⁷⁾

강창국(2023) 및 이강경(2024)의 선행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 대한 서술이 매우 충실하며,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 장사

16) 강창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우리의 대응,” 「군사논단」, 제113호(2023년 봄), pp. 138-150.

17) 이강경 외,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32집 2호(2024), pp. 163-176.

정포, 특수전 병력, 해상 및 공중 침투 수단 등 다양한 위협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본 항목의 선행연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항목과도 연관성이 높아, 화학탄 활용 가능성과 ICBM 보유 상황을 통해 WMD 위협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괄하고 있다. 반면,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과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전략적 개념의 명시적 언급이 부족하며, 4차 산업혁명과의 기술 연계나 한국의 안보 대비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연구의 종합성과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재래식 및 WMD 위협의 실증적 근거로 매우 유용하지만, 이를 전체 안보전략의 틀 속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북한의 핵무장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군사안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핵무기,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방사포, 자주포 등이 포함된다.¹⁸⁾ 북한은 무기체계를 위협 수단이나 협상용, 생존 위협 시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공기나 탄도미사일로 고공폭발을 일으켜 전자기파(EMP)로 국가 및 군 C4I 체계를 마비시키려 하며, 핵무기 소형화로 핵심 군사시설 무력화를 노린다. 화학작용제 2,500~5,000톤을 저장하고 장사정포 및 탄도미사일로 군사시설과 인구 밀집 도시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무기는 공작원에 의해 은밀히 살포되어 대량살상을 시도할 것이다.¹⁹⁾

김황록(2023)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무장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부분을 매우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 핵무기,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구체적인

18) 강창국, 위의 글, pp. 133-135.

19) 김황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평가,” 「군사논단」, 제114호(2023년 여름), pp. 48-57; 함형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 및 전망: 러·북 군사기술 협력이 미칠 영향,” 「한국국가전략」, 제24호(2024. 2), pp. 107-112.

무기체계와 그 사용 가능성, EMP 공격, 핵 소형화, 화학·생물무기 위협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이 항목에 대한 분석이 매우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문장에서는 대량선제 기습공격전략과 하이브리드전, 4차 산업혁명의 군사분야 영향, 그리고 한국의 안보 대비방안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여,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된 전략적 활용이나 대응책, 그리고 첨단기술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분석은 깊이가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전반적 안보 대응과 기술 변화 반영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안보 취약점은 북한의 테러와 비정규전에 항상 노출되고, 국제화와 인터넷 발달로 방어가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공격 시 국가 자원 통합과 민군 통합 훈련 부족으로 취약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비정규전과 테러를 정규전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 사고로 대비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²⁰⁾ 전면전 상황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위협에 직면하므로, 국가 차원의 전쟁수행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각 대응 능력 강화와 함께, 다양한 위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²¹⁾ 결론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규전뿐 아니라 핵·WMD와 비정규전 위협을 입체적으로 식별하고, 예상되는 문제와 전개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력과 핵무장에 대응하는 필수 체제로 평가되며, 복잡해진 지역 정세 속에서 북한은 갈등

20) 김종하 외, “복합적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의 방향,” 「국방연구」, 제 53권 제2호(2010년 8월), pp. 42-46.

21) 정연봉, “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 「한국국가전략」, 제21호(2023. 3), pp. 67-75.

을 심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국제 협력 체제 구축과 함께 평시 및 준전시 대비가 중요하다.²²⁾

김종하(2010), 정연봉(2023) 및 최영근(2023)의 연구는 안보 대비와 대응 역량 강화에 관한 부분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북한 위협의 다양한 군사적 실체와 첨단 기술 위협을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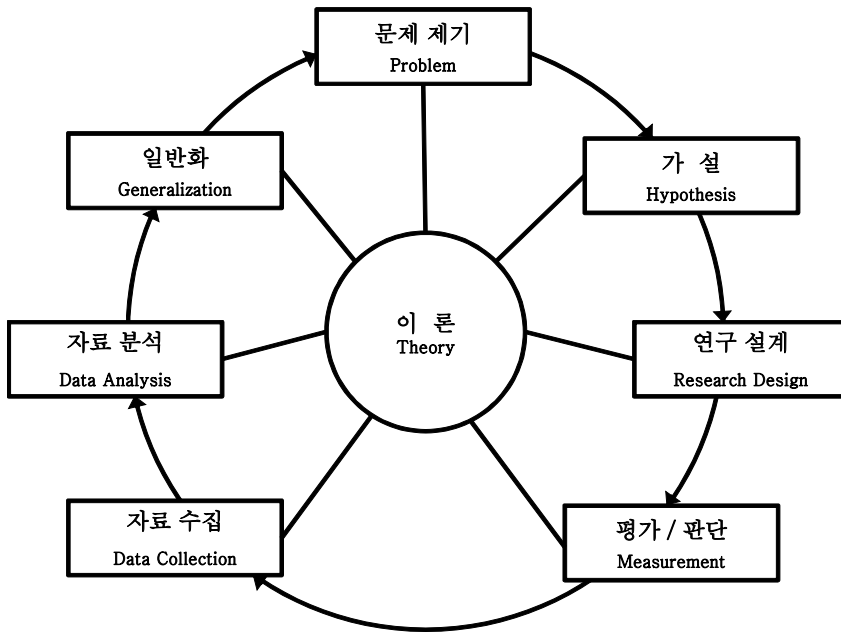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고찰은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핵·WMD, 사이버전, 드론전, 비정규전, 심리전 등-의 양상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정규전 중심 안보개념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 위협 등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에 대한 입체적·통합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안보 취약 요소의 식별과 함께 민·군 협력체계,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질적인 대비 전략 수립에 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다.

22) 최영근 외, “북핵 제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문제점 검토: 전략적 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12집 제3권(2023년 9월 30일), pp. 38-41.

3. 연구 방법 및 목차 구성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회과학연구의 귀납적 연구 방법과 연역적 절차인 가설검증법 절차를 준용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 1]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절차’ 처럼 가설검증법은 현재까지의 핵심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관찰된 이론적 현상을 기반으로 주요 쟁점별로 예증의 과정을 거쳐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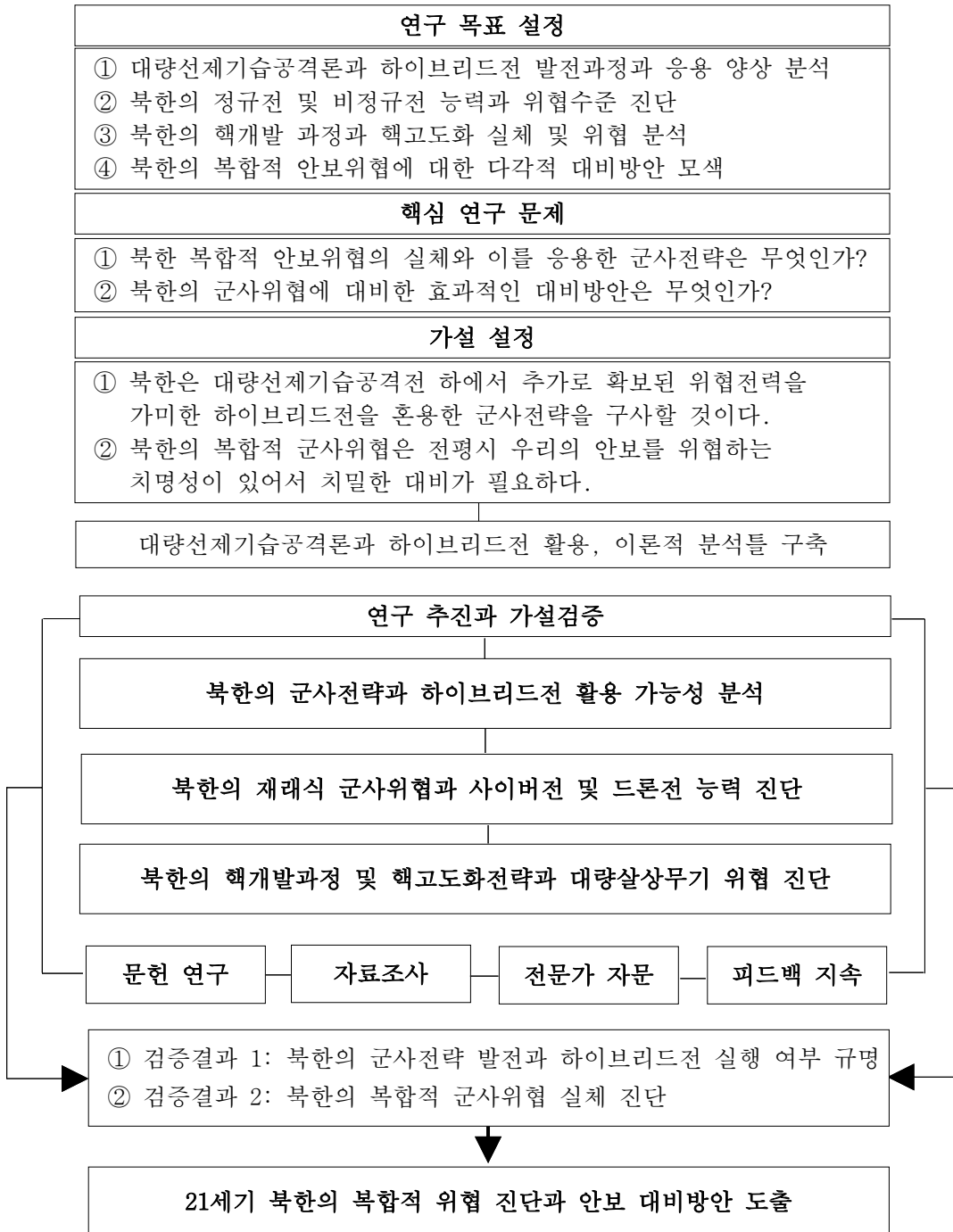
가설검증법의 주요 단계로서 문제의 설정은 연구의 목적과 관심 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구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며, 이론적 배경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을 탐구하고, 해당 분야의 이론을 정리하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다. 또한, 연구에서의 이론의 활용과 과학적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제시하는바, 가설은 연구자가 귀납적으로 진단한 현상을 기반으로 설정한 명확하고 시험이 가능한 가정의 집합이다. 이후 단계는 가정과 이론에 의해 설정된 연구 설계 및 변수 식별로써 연구방법론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은 무한대의 자료군에서 효율성이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설문조사, 인터뷰, 관찰, 문헌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는 예증으로서 가설검증에 활용되며, 자료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가설이 통계적 혹은 논리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한 후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절차를 종료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단계에 기반하여 1단계에서 문제 설정과 가설 제기, 그리고 II~V장에서 예증 분석과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그림 1]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절차

위의 가설검증법은 ‘Frank Nachmias의 사회과학연구 절차’를 준용하였다.²³⁾ 이를 위하여 I장인 서론에서 선행연구 고찰을 포함한 연구 배경 및 목표·연구 쟁점 및 가설을 제시하였고, II장에서는 대량선제기습공격전과 하이브리드전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III장에서는 재래식 전력과 북한의 특수전 전력 등을 분석하여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의 위험성을 진단하였다. IV장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고도화 전략을 분석하고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군사위협을 제시하였다. V장에서는 우리의 군사안보 대비방안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비방안을 모색하였다.

²³⁾ Frank-Nachmias 외,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New York: Martin's Press, 1992), pp. 21-23;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Random House, 1979), pp. 13-16.



[그림 2]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위협과 안보대비방안 연구 체계도

본 연구자는 앞의 4가지 문항을 통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① 북한은 대량선제기습공격전 하에서 추가로 확보된 위협전력을 가미한 하이브리드전을 혼용한 군사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 ②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은 전평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성이 있어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구 진행의 전반적인 절차 및 체계는 ‘[그림 I-2]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위협과 안보대비방안 연구 체계도’에서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군사력의 개념과 군사전략의 수립과정 및 의미

가. 군사력의 개념

1) 군사력과 관련된 일반적 개념

本考에서 군사력의 의미는 군사위협을 범위와 정도를 한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북한의 군사력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위협의 설명이 구체화될 수 있다. 군사력의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순수한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 사상력, 경제력을 포함하며 또한 집약하는 개념이다. 동시에 국가의 총력전력으로서 동원된 군사력과 잠재적 군사력(가용한 국가자원)으로 대별된다.²⁴⁾ 혹자는 정태적(단수 수량 및 화력지수, 병력과 조직의 질 등), 동태적(위게임 비교), 그리고 잠재력(전쟁 관계 역량)의 양을 군사력 평가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²⁵⁾

월츠(Kenneth N. Waltz)는 군사력, 즉 무력은 수단과 목적적인 측면에서 정의되며, 무력의 유용성이 있다하여 반드시 이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서 안보를 위해 무장을 해도 안보딜레마가 존재함으로써 무장을 강화시키는데, 상대방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무형의 개념까지도 군사력의 범위를 확장한다.²⁶⁾ 한 국가의 무력은 다른 국가의 국가 전략 및 국방정책, 그리고 군사전략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위에서 언급한 군사력이 모두 영향요인이 된다.²⁷⁾ 국가들은 대부분 군사력을 강

24) 이재평 외, 『군사학 개론』(서울: 법률시대, 2006), pp. 62-69.

25) 강석승 외, 『북한학 개론』(서울: 법문사, 1996), pp. 153-156.

26) Kenneth N. Waltz, 위의 책, pp. 185-189.

화, 군사력의 다목적성 활용, 군사혁신 추진, 비대칭 및 대량살상무기 확보 시도, 전통 및 비전통 안보 대비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⁸⁾

남북한의 군사력의 차이와 비교의 관점은 무엇인가? 남북한의 군사력의 측정과 비교는 어려운 문제다. 군사력의 개념은 국방백서나 Military Balance에서 열거해 놓은 순수한 군사력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한 국가의 잠재적 능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까지, 개념을 적용하려는 의도에 따라 그 폭이 매우 넓다. 특히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국력이 북한 국력의 수십 배에 달하지만 군사력의 비교를 정확히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군사력이라는 분야는 체제수준(체제 내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및 단위수준(남북한만의 독특한 안보적 특성)의 분석수준에서 묘사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군사력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을 다루는 문제와 매우 밀접하다. 6.25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존폐를 걸고 진행되었다. 지금 남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도 살아남고자 하는 두체제가 대결하고 있는 국면에서 비롯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Global Fire Power(GFP)는 60여 개의 군사력 요인을 평가(Power Index, 0.0000이 만점)하여 세계 145개 국가의 군사력 순위를 제시하였는데 남북한의 군사력을 진단하는데 유용하였다. GFP가 활용한 요인은 인구와 병력지수, 육해공 군사무기, 핵심 경제력, 인프라, 국방비, 무역량, 국가 채무, 영토, 해안선, 접경지역, 수로 등이었다.

‘< 표 1> GFP의 2024년 주요국 Power Index 순위’ 에서와 같이 남북한의

27)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New Jersey: Prentice-Hall, Inc.), pp. 214-217.

28) John Baylis,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 하영선 외 옮김,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4th Edition*(서울: 을유문화사, 2009), pp. 254-269,

군사력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군사력 지수에서 5위를 기록한바, 항모 부재, 에너지 수입의존도, 국가부채, 영토 지수에서 점수 순위가 낮았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군사국가임에도 불구하고 36위로 나타났다는데, 수송선, 항모 부재, 구축함 수, 에너지 생산, 도로, 국가부채, 구매력 등 경제의 낙후상황이 반영되었다.²⁹⁾

< 표 1 > GFP의 2024년 주요국 Power Index 순위

순위	국가	Power Index
1	미국	0.0699
2	러시아	0.0702
3	중국	0.0706
4	인도	0.1023
5	한국	0.1416
6	영국	0.1443
7	일본	0.1601
8	튀르키예	0.1697
9	파키스탄	0.1711
10	이탈리아	0.1863
36	북한	0.5313

2)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군사력 개념

본 연구자가 판단한 군사력이란 단순히 병력수나 무기 보유량과 같은 정량적 지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가 보유한 전쟁 수행 역량 전반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29) GFP(Global Firepower), *2024 Global Firepower Countries Index*(<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php>, 검색일: 2024년 10월 11일).

첫째, 실질적 군사력(realized military power)이다. 전통적으로 군사력은 병력 규모, 무기 체계, 방위 예산, 군사기술 수준 등 물리적 지표로 측정되어 왔다. 이러한 요소는 군사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며, 국방백서나 『Military Balance』 등에서 확인 가능한 협의적 군사력 개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군사력의 정태적 요소에 국한되며, 위협의 전개나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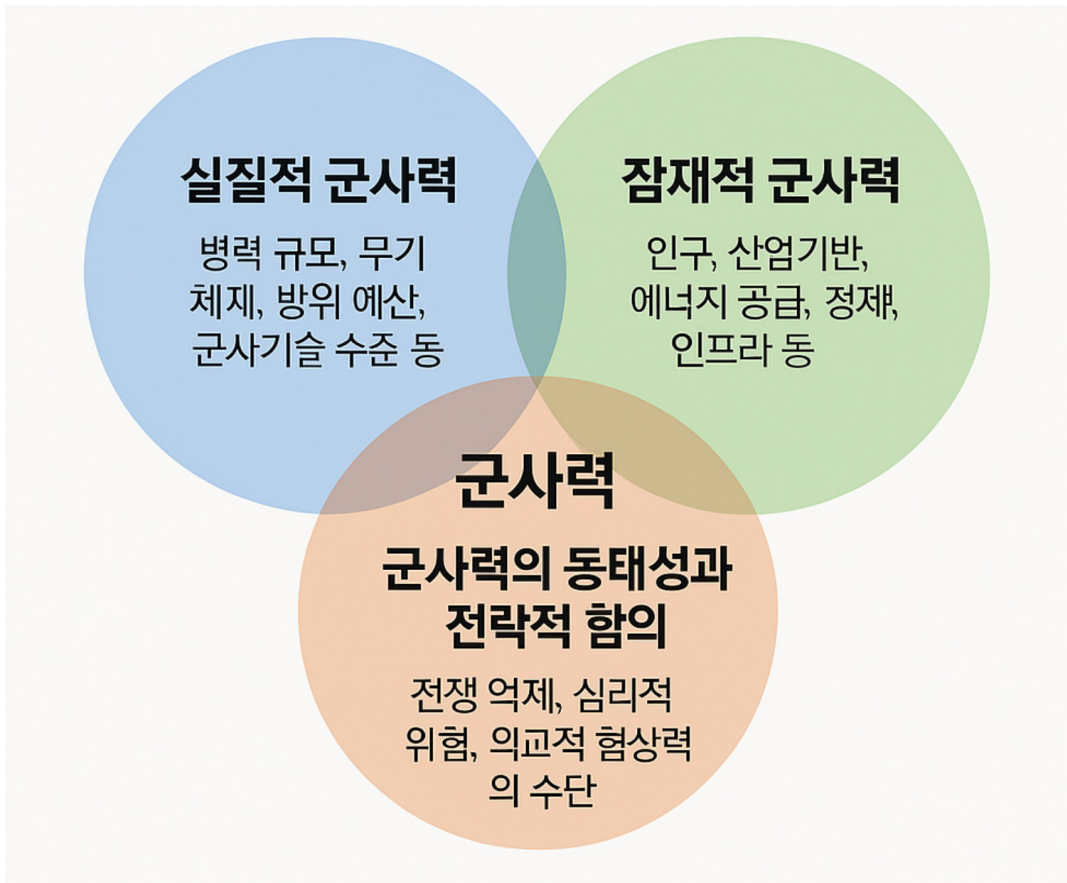
둘째, 잠재적 군사력(latent military power)이다. 국가의 군사력은 단순한 현존 자산뿐 아니라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역량, 즉 인구, 산업 기반, 에너지 공급, 경제력, 인프라 등을 포함한다. 전시 상황에서는 이러한 잠재력의 동원이 전력화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며, 국가의 총력전 수행 가능성과 연결된다. GFP(Global Fire Power)의 평가처럼, 인구 구조, 에너지 의존도, 무역 구조, 국가 채무 등의 비군사적 요인 또한 군사력의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군사력의 동태성과 전략적 함의(dynamic and strategic implication)가 포함되어야 한다. 군사력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서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Kenneth N. Waltz가 지적하였듯이, 무력은 반드시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안보 딜레마를 유발하며, 상대방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적 군사력(intangible power)의 영역을 형성한다. 따라서 군사력은 전쟁 억지, 심리적 위협, 외교적 협상력의 수단으로도 작용하며, 국가 간 전략적 상호의존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군사력이란 실질적인 무기 및 병력 자산,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자원 동원 능력, 그리고 국제전략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

현되는 정치·외교적 영향력까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이는 정태적 지표에 기반한 협의적 군사력뿐만 아니라, 잠재적 역량과 전략적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군사력 정의로서, 현대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본 연구자의 정의는 남북한과 같이 비대칭 구조를 지닌 국가 간 군사력 비교에서도 유용하며, 단순 비교를 넘어선 체제 간 생존전략 및 안보 딜레마의 해석 틀을 제공한다.



[그림 3] 군사력 구성요소 3분류

나. 군사전략의 수립과정과 실행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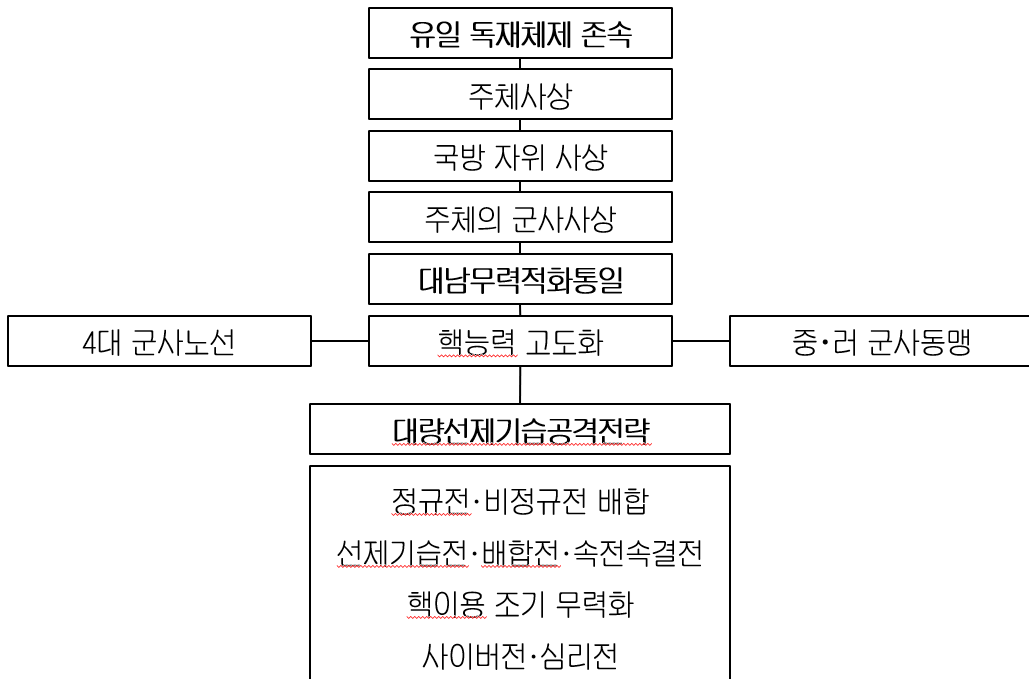
군사전략은 한 국가의 안보 및 군사위협에 대해 국가의 핵심이익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략 수립의 과정은 ① 환경의 이해 혹은 예상되는 상황 설정→② 분야별 위협과 기회 파악→③ 핵심적인 목표 설정→④ 추진내용 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환경의 이해는 과거, 현재, 미래의 환경을 트렌드화하여 분석하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는 과정이며, 위협과 기회 파악은 설정된 가정 상황에서 예상되는 위협과 기회를 분야별로 파악하고, 핵심적인 목표 설정은 위협에 대비하여 핵심적인 목표를 4-5개 설정하는 것이며 추진내용 구체화는 목표에 따른 과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작전을 수립하는 것이다. 과업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보유한 자원,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³⁰⁾ 드류도 ‘전략가는 전략의 성공을 위하여 연계성(목표 달성 수단)의 원칙, 미래성(미래 시각)의 원칙, 현실성(현상 근거)의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결부시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인가? 북한의 군사전략은 ‘[그림 4] 북한의 군사전략 체계’와 같이 북한의 유일지배체제를 존속시키는 통치 이데올로기에서 유래된다. 북한의 정권 초기에는 대남 적화통일과 체제 유지를 위한 방위력 확보가 국방목표이자 국방정책의 근간이었다. 북한은 이를 위하여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위적인 국방력 건설과 6.25전쟁을 통한 한반도 적화 실

30) Mazarr J. Michael, etc., *The U.S Department of Defense's Planning Process: Components and Challenges*(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19), pp. 7-42.

31) 이종학, 『한국안보전략연구』(서울: 박영사, 1992), pp. 350-354.

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1962년 이후 전군의 간부화·전인민의 무장화·전군의 현대화·전국통의 요새화인 4대 군사노선을 견지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³²⁾ 그러나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유일지배체제 하에서 수령의 생존과 1인 독재체제의 유지가 정권의 최상위 국가 목표가 되고 있다. 김정일은 2004년 4월 7일 전쟁발발에 대비하여 당·정·군에 배포한 ‘전시사업세칙’에서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력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³³⁾



[그림 4] 북한의 군사전략 체계

32) 4대 군사노선은 북한 헌법 제4장의 제58조~61조에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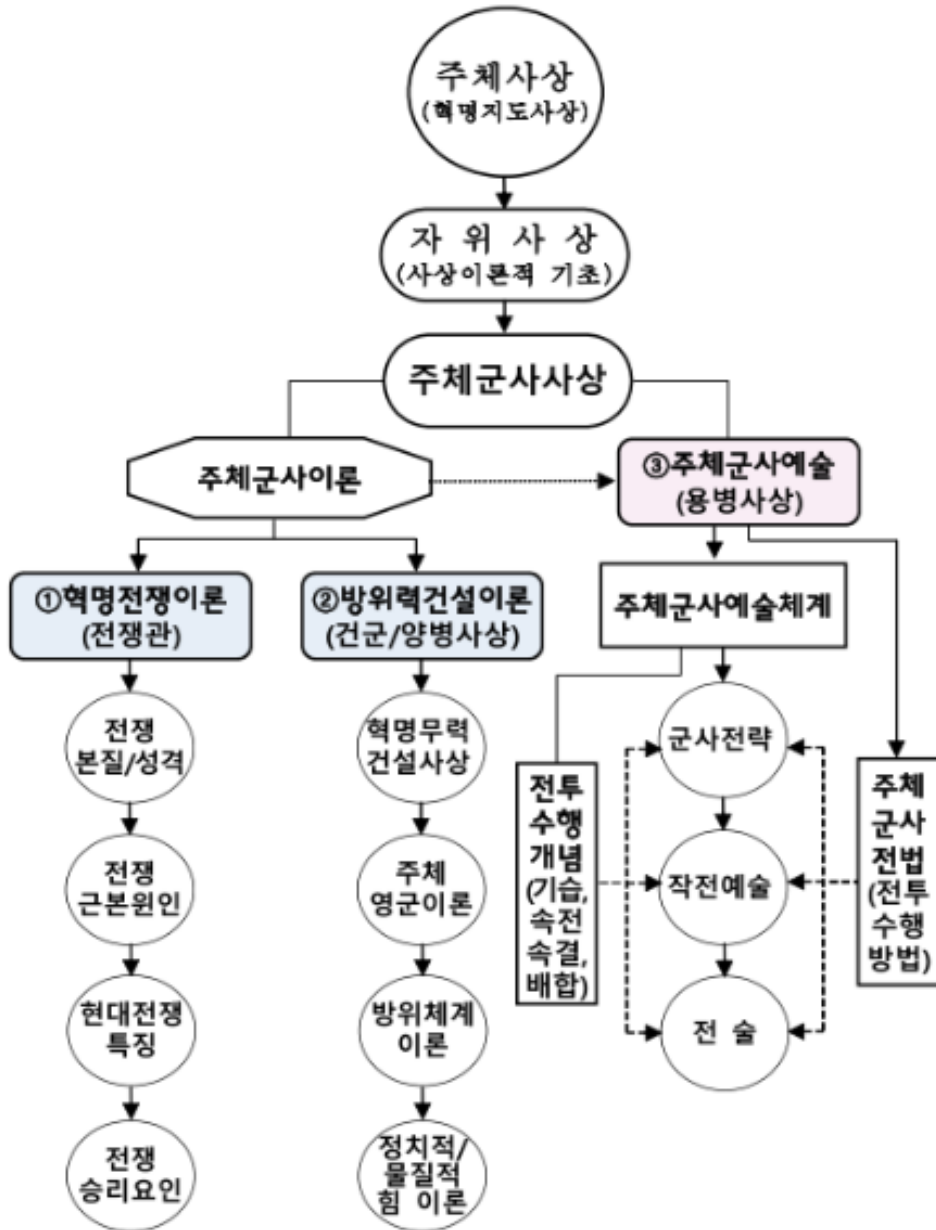
33) 「경향신문」, 2005년 1월 5일자; 전시사업세칙에는 전시에 전시사업세칙 즉시 실시, 전단위의 전쟁준비 철저, 전쟁 지장행위 엄벌, 전당·전군·전민 총동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핵심이익의 변화로 인하여 인민군과 그에 따른 군사력은 김정은 개인의 군대로 전략하였으며, 북한 정권의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성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의 군사전략의 위상도 일반적인 전략체계인 대남정책 목표→군사/국방정책→군사전략이 대남정책 목표(대남 선전전 및 심리전 가미, 최고 존엄 최우선시)→군사/국방정책(핵억지/협박, 확전 전략)→군사전략(대남 억지 및 군사력 억지를 위한 비대칭 전략 주력)으로 변화되고 기존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³⁴⁾ 따라서 연구자는 전통적 전략인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에 부가하여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전략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우리와의 국력 차이와 한미동맹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능력, 사이버전과 드론전 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군사전략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유판덕(2018)의 논문에서는 군사전략은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 등의 최상위 수준으로서 국가 최고지도부 등이 수행하는 용병술로 국가, 국방전략 틀 안에서 군사력 운용을 정치와 연계하고 작전술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 전략 개념 또는 북한의 전통적 전쟁·전투 수행 개념으로서 기습, 배합, 속전속결로 표현하고 있다.³⁵⁾

34) 이민룡, 위의 책, pp. 37-69.

35) 유판덕, 2018, 북한 주체의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2.



[그림 5] 주체군사사상 개념 체계도

출처 : 유판덕, 2018, 북한 주체의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2.

2.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론의 실체와 위협

북한의 전통적 군사전략은 기습공격, 배합전, 속전속결을 중심으로 하는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에 부가하여 핵무력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에서 인민군의 정치사상·도덕·전법·다병종의 4대 강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³⁶⁾

< 표 2 >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의 주요 구성 요소

구분		내용
선제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을 총동원 전후방 공세전략 감행 - 초기 전장의 주도권 확보 - 아군의 방어 수단 무력화 및 심리적 타격 - 본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에 유리
속전속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 역습 차단 - 장기전 수행 능력의 열세 극복 - 1인 독재 체제의 취약성 의식
정규전·비정규전 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전역의 동시 전장화 - 김일성의 유격전 경험 반영 - 한국사회의 특성과 취약점 공략
전략 추진 요건	군사력 전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격적 기습, 전후방 동시 전장화 - 전력의 70% 이상 평원선 이남 배치
	비정규전 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 명 이상의 특수전 병력 - AN-2기/공기부양정 다량 보유, 땅굴
	기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 등의 기동성 확보 - 공격부대의 여단 규모 편성
	WM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화생무기/탄도미사일/방사포 등
	4대 군사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준비와 실행의 필수 여건

36) 국방부, 위의 책, p. 25.

북한의 군사전략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표 2> 대량선제기습공격 전략의 주요 구성 요소’와 같다. 첫째, 선제기습전략은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사전 경고 시간이 매우 짧은 상태에 있는 바,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방사포와 자주포,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이 수도권과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현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기동성을 앞세워 전시에 기습전략의 수행이 가능하다. 해군 전력의 약 60%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서 기습공격과 지상군과 연계한 작전이 가능하다. 특히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 250여 척을 보유하고 있어서 특수전부대의 후방침투가 기도가 우려된다. 공군전력도 전투임무기의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였고, AN-2 및 헬기를 이용한 기습 침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북한 기습공격에 더하여 더욱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전략무기인 미사일 능력이다. 북한은 전략군 예하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13개 미사일 여단을 편성하고 있는데, 남한의 전 지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선제기습전략은 6.25전쟁에서 효과를 보았다.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은 미제 M1 및 카빈소총으로 무장한 반면에 인민군은 소련제 기관단총, 경/중기관총, 각종 박격포와 76밀리 곡사포, 45밀리 대전차포, 120밀리 중박격포, 82밀리 박격포로 무장하여 빠른 속도로 전장을 장악하였고, 조기에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군의 저항을 차단하였다.³⁷⁾ 북한군은 유엔군의 개입 이후 전세가 역전된 것을 교훈삼아 미군의 증원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의 승기를 잡으려 할 것이다.³⁸⁾ 전시에 우리의 조

37)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서울: 오름, 2008), pp. pp. 243-244, 326-327.

38) 박회락, 『한국안보전략연구』(서울: 법문사, 1993), pp. 359-360.

기경보가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여 우리의 대응이 부족하거나 산악지형이 많아서 부대 간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한곳이 집중적인 공격으로 방어선이 돌파될 경우 수도권 혹은 김포축선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불과 40여 km에 불과한 지리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다양한 포병 및 미사일 능력을 이용하면서 전진 배치된 전력의 이점을 살려 기습공격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둘째, 속전속결 전략은 기습전략에 이어 기계화·기동화·경량화된 전력을 활용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한 증원군 도착 이전에 최대한 넓은 지역을 점령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탄약·식량·유류 등 제반 전쟁물자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있어서 북한군이 제반 보급을 러시아로부터 지급받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군의 장기전 능력은 군수물자를 비축한다고 하더라도 월등한 우리 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³⁹⁾ 북한군의 속전속결 개념은 ‘100일 전쟁, 10일 전투, 3일 점령’ 인데 1996년 5월 23일 귀순한 북한군 공군대위 이철수는 ‘24시간 이내 서울 점령, 7일 이내 부산 석권’ 이라는 ‘7일 전쟁’ 개념을 증언하였다.⁴⁰⁾ 이를 위하여 북한은 단일군체제를 유지하여 지휘체계를 단순화하였으나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당이 수행하는 전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규전과 비정규전 배합전략은 특수전부대를 활용하여 후방

39)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 되고, 러시아 부대에서 북한군에 보급품을 지급하는 모습과 한글로 된 모자와 군복 및 군화 치수 파악용 설문지 등이 발견되었다.; 국내외 언론, 2024년 10월 18~22일자 등.

40) 이민룡, 위의 책, p. 66.

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한반도 전역을 전장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근거하여 고안된 유격전 전략은 6.26전쟁 시에도 실행되었으나 전세에 영향을 줄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술 및 정치교육의 중요성, 모택동의 지구전을 응용한 결과 유격전 전략을 구사하였고 중국과 소련에서의 활동 경험을 가미하였다. 스탈린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후방의 안정성, 군의 장비, 군의 사기, 지휘관의 조직능력, 사단의 양과 질’을 강조하였고, 모택동은 ‘혁명은 민족전쟁이고, 전쟁은 정치이며, 최고의 형태는 무기에 의한 전권의 탈취’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는데, 이들의 군사사상이 북한의 군사전략에 상당히 반영된 측면이 있다. 특히 모택동의 지구전 전략은 4대 군사노선에 반영되었고 빨치산정신이 인민군의 중심사상으로 뿌리내리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다음은 김일성의 유격전전략에 대한 언급으로서 6.25전쟁에서 야간전, 산악전, 빨치산 투쟁, 점령지에서의 정치공작 및 대량 학살 등의 형태로 전개된바 있다.

우리가 전략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대 작전으로부터 소부대 작전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우리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대부대로 적과 맞서 싸운다면 우리 역량은 불가피하게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역량을 소멸, 약화시키려는 적들의 기도를 실현시켜주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으며...유격대 역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많은 적을 소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41)

41) 김일성, ‘대부대 작전에서 소부대 작전으로 이행, 혁명역량보존 축적을 위한 전략적 방침,’ 『김일성 저작집 제1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本考에서는 <표 2>에서처럼 북한이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요건으로서 군사력의 전진배치, 비정규전 병력, 기동성, WMD, 4대 군사노선을 제시하였다. II장에서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과 4대 군사노선의 관계를 진단하고 나머지 요건은 III, IV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북한은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쟁 복구 이후 4대 군사노선에 공표하고 군사력을 건설하고 전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헌법에 국가적 과업으로 명시하는 등 군사국가로서의 행보를 보여 왔다. 북한은 1962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공식화하였는데, 1960년대 중·소 대립과정에서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와 구소련의 원조중단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의 군사력을 전쟁준비 상태로 유지하고 장기간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전인민의 무장화는 병력의 보충과 후방방어를, 전국토의 요새화는 전쟁의 장기화 및 후방의 요새화를, 전인민군의 간부화는 전쟁수행 능력 강화와 증편의 효율화를, 마지막으로 군장비의 현대화는 전쟁능력 강화를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은 김일성의 언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적은 조건에서 지금보다 정규군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전 인민이 싸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으면 설사 적들이 침입해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조국해방전쟁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바로 전인민의 무장화를 실현하지 못한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전 인민의 무장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체 인민이 싸워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무장을 하고 나설 때 인민군대는 그 앞에서 서서 싸울 뿐만 아니라 많은 간부를 내어 인민무장력, 다시 말하면 노동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를 지휘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유사시에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전군의 간부화).

군수공업부문에서의 중요한 과업은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전쟁승리를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여러 가지 전쟁물자 예비를 더 많이 마련하여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몇 해 쓸 수 있는 물자 예비를 마련해 놓아야 전쟁준비를 해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군 장비의 현대화).⁴²⁾

현대전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장기 보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전략상 주요지대의 요새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까(전국토의 요새화).⁴³⁾

한편,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은 비대칭 무기의 강화로 더욱 공세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2024년 2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 ‘핵무력을 통한 남한의 점령’을 주장한바 있는데, 이는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의 핵심 무기체계에 핵무기가 편성되고, 핵무력 고도화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 무력 적화통일에 있음을 드러낸 것

42) 김일성,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30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5).

43)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이다.⁴⁴⁾ 북한은 한미동맹의 연합전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칭 무기체계로서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개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생산능력 보유, 한반도의 전 지역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이후 300km의 사정거리를 갖춘 SCUD-B, 500km의 SCUD-C,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작전배치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는 사거리 1,300km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2010년대에 들어와 탄도미사일인 화성-12, 14, 15, 17형을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접근하고 있다.⁴⁵⁾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은 오늘날의 전쟁 여건상 과거 6.25전쟁 당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양측의 군사력이 전방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한국군은 조기경보 체계, 정밀감시 능력, 요격 및 선제타격 능력 등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한미 연합군의 전반적인 군사적 우위는 북한이 기습공격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 내부적으로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목적으로 김정은 유일사상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전시 상황에서 해당 체계가 통제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경제난과 장기적인 식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민군 내부의 사기 저하와 탈영 가능성은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에 중대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고 하여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 전략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 정치적 목적과

44) 이강경 외, 위의 글, pp. 149-151.

45) 국방부, 위의 책, pp. 30-32.

전략적 전환점의 필요성에 따라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ward)의 군사적 결단을 감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정권 유지의 위협을 절감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군사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최근 북한의 인민군 병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정황은 북한이 자국 병력을 국제적 보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략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는 인민군의 전투력 약화, 탈영 및 사상적 해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중적인 전략 위협을 내포한다.

또한, 북한 사회 내부는 오랜 경제난과 계층 간 위화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피로 누적, 장마당 경험 등을 통해 이전보다 체제 순응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핵심 계층과 적대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이러한 내재된 불만은 유사시 전시 동원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회적 균열과 병력 이완 가능성을 철저한 감시와 공포 통치, 사상 통제를 통해 상쇄하고자 하며,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핵전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략 자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은 다양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그 실행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과 전략적 판단 기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군사적 환경 변화에 따라 여전히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전략의 실행 가능성과 위협성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3. 4차 산업혁명과 군사적 위협의 확장

4차 산업혁명은 군사기술의 혁신을 불러온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이 추진하는 비대칭무기와 사이버 및 테러 분야에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로봇,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물기술, 3D프린팅, 자동 운전장치, 로켓, 반도체, 의료 등 제반분야의 속도, 정밀화, 계산, 지속성, 고화질, 모바일화, 영역, 입체화를 현저히 증대시켰다.⁴⁶⁾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유형, 무형의 사물이 모두 동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고, 사물로부터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인데,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과정을 만든다. 사물인터넷의 특징은 사물 특성의 지능화, 자동화를 통한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 다양한 연결 방식에 의한 정보 융합, 더 나은 지식과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사물인터넷에 활용되는 기술은 광범위한바, 센서/상화 인지 기술, 통신/네트워크 기술, 자율형/지능형 플랫폼 기술,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사용자 중심의 응용 서비스 기술, 웹서비스 기술,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등을 들 수 있다.⁴⁷⁾

4차 산업혁명시대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군사기술 영역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군사기술의 발달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데, 민군겸용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국방기술 정책은 Spin-Off(국방기술 발전 부산물이 민간으로 전파된다는 의미로, 국방기술 개발에 국한하고 국

46) 오원진,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전장의 모습: 지상전을 중심으로,” 『국방과 기술』, 제471호(2018. 5), pp. 80-91.

47) 김정섭, 『초연결 사회의 탄생』 (서울: 위키미디어, 2019), pp. 69-91; 남상엽 외, 『사물인터넷 개론』 (서울: 상학당, 2015).

가차원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무관심한 정책)에서 민군 겸용(Dual Use)로 전환되었는데, 첨단 상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국가 위기 시 민간분야의 관련 산업을 즉시 통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민군 겸용 정책은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급변하는 과학기술 및 산업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⁴⁸⁾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영역을 보면 핵 및 첨단 무기의 소형화 및 유도체계, 인공위성과 컴퓨터체계로 결집된 감지장치의 첨단화 및 정밀화, GPS 장치의 초정밀 및 속도 확대, 다양한 무기체계의 스텔스화 적용, 무인항공기 혹은 드론의 군사무기 활용 확대, 우주공간의 활용, 플라즈마(Plasma, 기체상태의 빔으로 이온 또는 전자를 광속으로 투사) 타격무기의 개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레이저광을 광속으로 표적에 투사)와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전자펄스를 발사, 전자부품 무력화), 무인전투기, 무인잠수정, 무인 지상전투차량, 회오리바람 대포(인공 회오리바람을 노즐을 통해 발사), 통증전자파(전자파를 발사, 사람의 피부에 극심한 통증 유발), 음향탄(소리를 140dB 이상으로 증폭시켜 고막에 통증 및 방향감각 상실 유발), 전자기 펄스탄(전자기 펄스를 발사, 전자체제 마비), 탄소섬유탄(수천 개의 탄소 섬유를 비산시켜 주요 시설 마비), 고섬광 발사탄(강력한 섬광 발사로 인명의 무력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⁴⁹⁾ 과학기술은 반드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전쟁의 기반시설인 도로, 자동차, 통신수단, 시계 등을 지배하고 구성하고 있다.⁵⁰⁾ 프리드먼(George and Meredith Friedman)은 전쟁과 관련하여 첨단

48) 임금순, '미국의 국방기술정책 변화에 관한 고찰', 『국방논단』, 제35호, 1996년 가을.

49) 박용운, 위의 글, pp. 178-186; 최석철, 『무기체계@현대·미래전』(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03), pp. 419-474.

50) 마틴 반 클레벨트; 이동욱 역, 『과학기술과 전쟁』(서울: 황금알, 2006), pp. 372-383.

정밀 유도무기의 등장으로 총력전의 시대가 종결되었으며, 유도시스템을 갖춘 무기에 의해 고비용이 드는 전차의 효용성이 감소되고 인공위성 및 공중 정찰, 컴퓨터체계로 결집된 감지장치의 첨단화로 전차 등 덩치가 크고 느린 전투장비가 숨을 곳이 없으며, 전략 폭격과 정밀 유도폭탄의 중요성, GPS 장치의 활용 확대, 스텔스기, 무인항공기, 우주공간의 활용 증대를 전망하였다.⁵¹⁾ 또한 첨단 기술의 새로운 군사기술의 등장은 군사혁신의 필요성을 유발하고 있다.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적 도입으로 군사력 운용 및 조직개념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전쟁양상과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념’으로서 군사혁신은 군사 및 안보 환경, 핵심 역량, 정책적 의지, 신기술의 등장에 의해 촉발된다.⁵²⁾

4차 산업혁명은 남북한의 군사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남북한의 군사력 및 군사전략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 것인가? 본고에서는 ‘<표 3> 남북한의 4차 산업혁명 SWOT 분석’에서 분석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하에서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군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국력 측면에서 남북한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 측면에서는 북한의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먼저 우리의 경우 강력한 경제력과 인프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선진국으로서 강점과 기회가 충분하다. 그러나 강대국과의 경쟁 및 후발국들의 도전을 고려하면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⁵³⁾

51) George Friedman, 위의 책.

52) 김종하 외, 『군사혁신과 한국군』(서울: 북코리아, 2008), pp. 24-29; 정춘일,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4.0,” 「전략연구」, 통권 제72호(2017. 7), pp. 189-191.

53) 박춘우, “4차 산업혁명과 한국 방위산업의 대응 방안,” 「국방과 기술」, 제459호(2017. 5), pp. 80-99.

< 표 3 > 남북한의 4차 산업혁명 SWOT 분석

남한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보유 - 세계1위 스마트폰 잠재국 - 강력한 군사력/경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원천기술 경쟁력 부족 -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미흡 - 개인보안 취약, 개방사회
	기회(O)	위기(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IoT 태동단계 - 지능형/개인안전 요구 증대 - 군사분야 IoT 수요 증대 - 선진기술 접목 용이 - 군사력/전략 질적 개선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의 출현 - 중국, 대만 등 후발국 급성장 - 서비스플랫폼 신흥 강자 등장 - 기술 경쟁 극심 - 대북 방어체계 복잡
북한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해킹 인력 양성 - 폐쇄성/보안성 강력 - 중러 등 기술 이전 추진 - 핵/미사일 기술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 경제 등 경제난 심화 - 국제 경제제재 지속 - 폐쇄적 기술 개발 - 과학기술 낙후
	기회(O)	위기(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칭 무기 영역 수요 - 제3세계 무기 수요 - 군사경제, 내부저항 미약 - 대남 취약성 공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체제 하 산업 동력 마비 - 국제적 고립 심화 - 군사기술에 국한된 기술 개발 - 대남 격차 증대

세계 1위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여 경쟁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많은 사이버 범죄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보다 기술적인 활용 수준이 월등하여 주요 무기체계에서 발전속도가 빠르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낙후된 경제 상황과 폐쇄국가로서의 강약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력으로 전반적인 기술개발이 불가능하여 비대칭 분야에서의 군사기술

개발과 인력을 집중 투자하는 사이버전에 몰두하고 있다.⁵⁴⁾ 지역안보 상황 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비전통 안보문제가 사회, 인간(인권), 경제, 식량, 에너지, 환경, 테러, 그리고 사이버 분야에 걸쳐서 확장되고 있다.⁵⁵⁾ 사회 안보는 종교나 문화문제를 제외하고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말한다. 인간안보는 어떠한 국민이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외세 개입이 합법화된다는 의미이다. 경제안보는 체제 내의 경계가 붕괴되면서 유발되고 자유무역과 시장 경제체제에서 다른 국가나 개인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식량 안보는 인구증가, 소비패턴의 변화, 기후변화 등의 현상으로 식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상황 하에서 먹고 살만큼 먹을 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에너지안보는 자원전쟁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국가 안전보장의 필수조건이라는 개념이다.⁵⁶⁾ 산업스파이란 산업 관련 기술을 유출하거나 복제하는 행동주체를 말하는데 경제전쟁의 한 영역이다. 환경안보는 지진, 태풍, 전염병, 홍수, 해일, 가뭄 등에 국가 차원의 대비 개념으로서 환경위협이 군사적 위협과 같이 핵심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초국가범죄는 범죄행위가 인접국가 혹은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무기거래, 마약밀매, 위폐거래, 밀입국, 인신매매 등이 해당된다. 테러안보는 영토, 경제, 민족, 종교, 이념 등 다양한 문제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이버안보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할

54) 정동, 위의 글, pp. 4701-4703.

55) 이근, 위의 글, pp. 65-70.

56) 한두봉 외, “식량안보 및 에너지안보 수준에 따른 국가 유형 분석: 식량 및 에너지 자급률을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제53권 제4호, pp. 91-93.

수 있는 개인 및 국가 전산망에 대한 일체의 위협에 대비하여 개인 및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⁵⁷⁾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문제 발생 현상은 전 지구적, 시급성, 전통적 모습의 변형, 질적인 변화, 불확실성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Anarchic 상태 하의 무질서와 약육강식의 시대를 반영한 결과로서 국제사회와의 경계 붕괴, 국가 간 서열 존재, 타 국가에 대한 위기 둔감, low politics에 대한 관심 증대, 기술과 정보의 빠른 순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변화 등에 기인한다.⁵⁸⁾ 비전통 안보 위협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바, 국력의 집적 필요, 국제적 리더십 및 생존 환경 조성, 국민의 행복과 삶/가치 존중의 정치 구현 필요, 지정학적 환경 개선, 복합적 안보 대비 및 시스템 구축, R/D투자 확대와 정치의 투명성 요구, 경쟁력 있는 산업의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⁵⁹⁾

57) 정동, 위의 글, pp. 4697-4699.

58) 박병훈 외, “유럽통합이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 기능주의적 접근과 비전통적 안보영역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3. 8, pp. 24-30.

59) 송은희, “비전통 안보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pp. 256-260.

4. 하이브리드전과 북한의 예상 운용전략

하이브리드전은 ‘적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평시 구분 없이 모든 전력을 배합, 예측불허의 전략으로 아측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쟁 전략’ 이라는 개념이다. 이 전략은 미군이 2000년대 후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패배를 면밀히 분석하여 승전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 차원에서 고안한 것이었으나, 북한은 하이브리드전과 유사한 전략을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사건에서 어뢰 공격을 시도하여 우리 해군에 대하여 장병 46명의 사망 및 실종과 함께 함정이 침몰되는 피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시도될 수 있는 위협이며, 북한이 전평시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과 함께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표 4> 하이브리드전의 주요 특징’ 은 하이브리드전의 실체를 분석한 것이다. 위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전은 다

< 표 4 > 하이브리드전의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경제·사회·군사 외교 등 총체적 목표 달성 -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 두려움 확대로 후방 혼란 - 초기 전장 기선 제압, 주요 지점 장악
준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적이고 유연, 치명적이고 복합적인 공격 능력 - 모든 자원과 능력 활용, 첨단 정밀무기 사용 - 적의 취약점 장기간 연구, 강점 위주 비대칭 전력 구축
공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전/비정규전 능력 통합 운영, 네트워크화 통제 - 전후방이 없는 동시 공간, 예측불허의 기습 - 고도의 심리전 및 사이버전 전개, 지연전 - 비대칭성/복잡성/경계 모호

목적용이다. 전략목표는 적의 국민과 군에 대해 심각한 공포감과 두려움, 혼선 등을 초래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적에게 협상 또는 요구조건과 실익을 얻어내는 것이다. 전시 초기에는 기습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선을 제압하고 주요 표적을 무력화 내지는 타격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공격능력이 필요하며 전장에 맞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적아의 장단점과 전장 환경, 시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국력 내지는 새로운 군사기술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이브리드전의 공격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정규전과 비정규전 전력이 동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실행된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인질을 납치하거나 거점을 점령하여 일정 기간 거부작전을 전개하는 유연성이 있다. 셋째, 고도의 심리전과 사이버전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넷째, 보통의 전쟁양상과 달리 비대칭적이고 경계가 모호하여 국지도발에서 전쟁의 형태까지 상황 전개가 변화무쌍하다.⁶⁰⁾

앞에서 언급한바,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개념은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호프만 등이 레바논 남부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2000년대 이스라엘과 반군인 헤즈볼 간의 공방에 착안하여 발전된 전략이다. 양측 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943년 레바논의 독립 이래 기독교 세력의 정부군과 이에 대항한 반군세력(헤즈볼라 및 PLO) 간의 내전이 지속되었고, 수시로 이스라엘로 전장이 확대되었다. 1976년 레바논 정부군과 반군 간의 휴전 이후 이스라엘과 반군 간의 분쟁이 지속되었는데, 레바논 내 Shebba Farm 지역을 이스

60) 김남철, “강대국들의 하이브리드전과 주요 사례분석,” 『한국군사학논총』, 제11집 제2권(2022년 6월), pp. 6-20.

라엘이 장악하여 헤즈볼라 등의 반군이 이에 반발하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유엔이 개입하여 유엔평화 유지 및 PKO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3, 4 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2000년대 초반 헤즈볼라를 공격하였고 헤즈볼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남부레바논에서 철수한 후 약 6년 동안 이란과 시리아의 전폭적인 지원(개인 무장, 대전차무기, 로켓포 및 미사일 등) 하에 이스라엘의 약점을 철저히 연구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2006년 헤즈볼라와의 교전에서 상당히 고전하였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주요 전투지역에 터널 및 참호를 만들어 베틀콩식 게릴라 전투를 수행하면서 이스라엘군을 깊숙이 유인하여 배후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북부지역에 수십 발의 로켓포를 발사함으로써 이스라엘 난민 수십만 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이 방공호에서 생활하는 준난민으로 전락하였고, 이스라엘 국민의 심리적 충격과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였다. 헤즈볼라는 충분한 예비병력을 확보하여 전쟁의 지속성을 강화하였으며, 포로 및 방송을 이용한 심리전을 전개하였다.⁶¹⁾

하이브리드전은 특징적으로 다양한 전쟁 이론의 강점을 취하고 있다. 첫째, 하이브리드전은 배합전에서 비정규전 능력의 비중이 높다. 하이브리드전에서의 비정규전은 보통의 비정규전이 전쟁의 지연과 보조 수단으로 인식되는데 반하여 작전적으로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해 시현된 하이브리드전은 비정규전이 정규전의 시점이 되었고, 인질을 전쟁 승리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둘째, 하이브리드전은 전쟁 양태를 모호하게 만드는 바, 복잡성이 증대되고 관여하는 행위자가 다양해진다.⁶²⁾ 셋째, 하이브리드전은 적이 강력한 상

61) Frank G. Hoffman, 위의 책, pp. 5, 23-24, 35-42.

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칭전략을 구사하는 바, 강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찾는 전쟁이다. 과거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여타 중도지역에서 벌어진 것처럼 인구밀집 지역에서 정규 및 비전투원을 활용한 IED 및 자살폭탄 공격을 비롯하여 그 양상이 첨단장비를 사용한 반위성, 반항공, 반함정, 수중 전쟁과 WMD 및 사이버 공격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한 다양한 범주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전은 배합전과 4세대 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배합전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여 전략적 측면에서 군사적 취약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통합된 방향으로 동시에 사용하지만 작전 및 전술 수준에서는 복잡성, 융합, 동시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전에서는 국가적 취약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서 위 3가지 특성이 모두 표출된다. 4세대전쟁⁶³⁾에서 사용하는 비국가 조직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하이브리드전은 국가 및 비국가 조직이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다.⁶⁴⁾

과연 북한은 어떠한 방식의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것인가? 최근에는 천안함 사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살펴볼 사례로 등장하였고,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급성장과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병 등이 북한의 전략적 지향성을 보여준다.⁶⁵⁾ 먼저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전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단일군 체제 하의 지해상 병력과 장비를

62) Robert M. Gates, "A Balanced Strategy,"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9, pp. 28-40.

63) 1세대: 활강총시대, 2세대: 화력집중과 소모전, 3세대: 전격전/기동전, 4세대: 네트워크전/비정규전/비정부군 및 초국가행위자 역할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64) 전중순,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 합동개념의 변화," 『합동군사연구』 제19호, pp. 52-99.

65) 최근대 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대응: 하이브리드전의 이론과 적용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54집(2022), pp. 140-147.

들 수 있으며, 수도권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장사정포 능력, 비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 잠수정 및 수상침투 능력, 공중침투 기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군의 전쟁 의지 말살 및 무력화를 위한 주요 공격수단이며 한반도 전역에 대한 광범위한 타격이 가능하고, 이동 발사대의 기동성과 집중 및 분산 운용으로 생존성이 보장되는 미사일 능력이 있다. 이에 부가하여 위협수단 또는 공격목표 달성 후 협상에 의한 종결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일체계의 존망이 위협받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핵 능력과 대규모 인명피해를 노리거나 동시에 군시설 및 주요 공항만을 마비시키는 화학전 및 생물학전 능력이 있다. 이외에도 심리전 및 국가중요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사회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사이버전 능력도 있다.

북한이 구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전 양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첫째, 현재와 같이 2개 국가론을 내세워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북러 밀착과 파병,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간접적 효과를 노리는 저수준의 하이브리드전이 있다. 둘째, 준전시 직전 상황으로서 전쟁 상태를 유도하거나 공세적인 대남 압박을 위해 비정규전 병력을 이용한 DMZ 돌파 혹은 주요 군사시설을 일시적으로 공격 또는 점거, 일종의 자살공격 형태로서 심각한 수준의 혼란 조성을 기도할 수 있다. 셋째, 준전시 및 전시에는 후방교란 및 남한 내 불안 조성을 위한 전방지역 전력을 최고 수준의 전쟁상태로 준비한 비대칭 위주의 기습공격, 수도권 확보 후 협상을 통한 전쟁 종결 혹은 여건 조성시 전과확대를 위해 전방지역과 함께 2개 전선에서 동시 기습 공격을 실행하는 수도권 제한 공격, 서북도서 및 접경 도시 강점을 위해 방어태세 강구 하 기습공격 후 협상을 실시하는 서북도서 혹은 접경지역 도시 공격 및 점거 등을 들 수 있다.⁶⁶⁾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분석해보면 하이브리드전 관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즉 북한의 전쟁 방책은 지극히 예측 가능하다. 북한은 우리의 취약점을 충분히 연구한 후 빈틈을 노려 공격하는 것인 바, 공격 시기나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공격은 우리의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방어하기 힘든 형태로 전개될 것이며, 우리의 능력을 분산시키고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의 공격을 해올 것이다. 북한의 군사능력은 재래식 전력에서 사이버전·심리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상당하며, 이들을 조합할 경우 그 위협의 강도는 훨씬 강력할 것인바, 우리 군의 대비 역량이 미흡할 수도 있다. 평시 및 준전시 상황에서 비정규전 및 테러, 심리전 전개 시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은 시너지 효과가 큰 조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상정하여 민관군의 역량을 결집한 총체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⁶⁷⁾

북한은 하이브리드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1일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시 핵 대비 훈련을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바, 북한의 핵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무기가 되고 있다. 북한은 평시에는 위협 및 억지 전략용으로 핵을 사용할 것이나 전시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를 조종하거나 체제 생존을 위하여 핵카드를 꺼낼 수 있다. 먼저 부분타격 후 협상 시나리오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위협을 통해 미 증원전력의 전개

66) 문계성 외, “이스라엘-하마스 공격전술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하이브리드전 대비 연구,” 「접경지역통일연구」, 제7권 제2호(2023년 겨울), pp. 162-170.

67) 이창욱,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주요 이슈와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외교」, 제148호(2024. 1), pp. 103-110.

방해하거나 미국 내부의 참전반대 여론의 형성을 시도할 수 있다. 즉, 개전 이후 한미의 대량보복을 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종결 짓는 효과적인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이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하거나 또는 이러한 국지도발로부터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태의 주도권을 잡는다든지, 북한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전쟁을 종결하고자 할 때에도 핵보복 위협은 정치적 협상력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⁶⁸⁾ 마지막으로 한반도 전면전 상황 하에서 북한은 핵을 북한지역에 대한 전장화를 거부하거나 개전초기 유리한 전장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는 직접적인 도시타격이나 군사표적에 대한 타격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의 직접적인 사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히려 자신의 핵사용이 미국의 대량보복을 유발함으로써 자신의 1인 독재체제 붕괴를 자초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노출된다. 북한은 전면전 발생 시 이러한 전략적 딜레마에 노출되며 핵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결정에 좌우될 것이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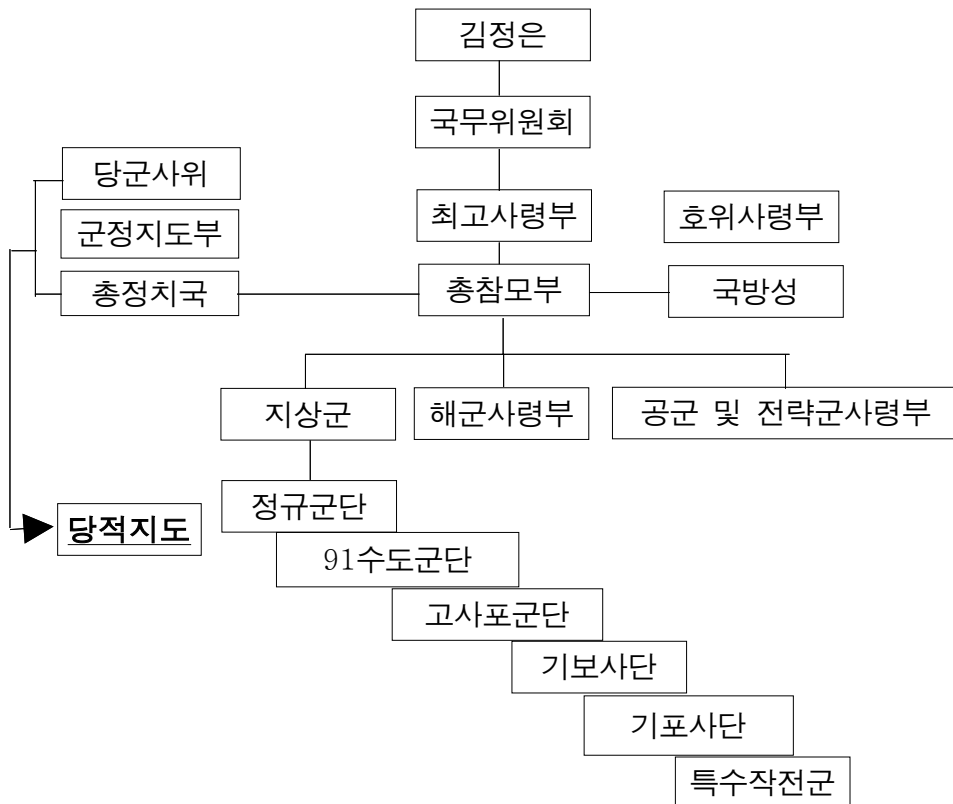
68) 한주성, 위의 글, pp. 167-170.

69) 박영택 외, 『남북한 군사력의 현재와 미래』 (서울: KIDA Press, 2010), pp. 219-230.

Ⅲ. 북한의 군사체제와 대량선제기습공격 위협

1. 북한의 군사지휘체제와 장단점 진단

북한군의 군사지휘체제는 당통제와 단일군 체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III-1] 북한군 지휘 및 당통제 체계’와 같이 북한의 모든 당·정·군 조직들은 당의 철저한 지도와 통제(당적지도) 하에서 운영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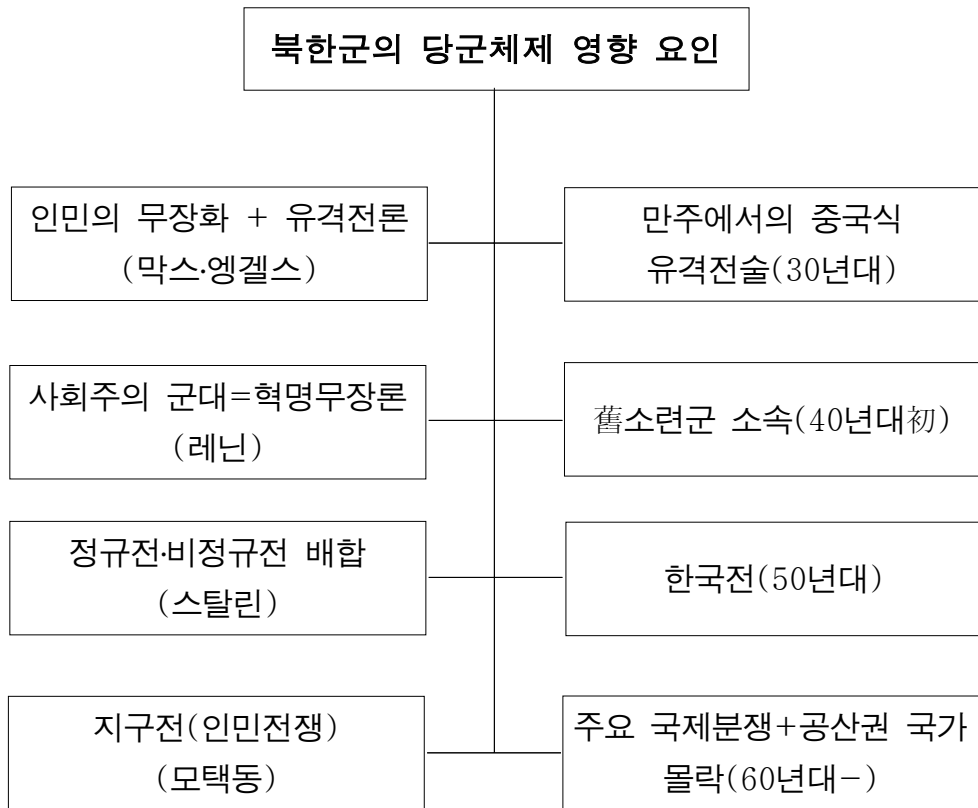


[그림 6] 북한군 지휘 및 당 통제 체계

고 있다. 특히 북한 군부는 군사국가 및 선군정치 체제 하에서 1인 독재를 유지하는 근간으로서 그 활용성에 한계가 없는 조직이며 반면에 무장조직으로서의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당이 군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군은 지상군 위주의 단일체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당군 관계는 노동당의 기본원칙인 ‘당 주도의 중앙집권체제’를 따르고 있다. 중앙집권제는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당규약 제2장)’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군도 이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노동당의 중앙군사위원회와 전담부서인 군정치지도부, 그리고 집행부서인 총정치국이 정책에서부터 말단의 집행 내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군 조직에도 당조직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당을 배제시키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⁷⁰⁾ 따라서 북한 인민군의 평시의 훈련과 전쟁 수행 등 모든 과업을 당이 주도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당군 관계 및 지휘시스템은 ‘[그림 7] 북한군부의 당 통제 및 군사지휘체계 영향 요인’에서와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경험하거나 모방한 공산주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체제 영향을 준 요인들은 김일성은 만주에서의 활동과 마스-레닌사상으로서 김일성이 ‘자신의 사상적 뿌리이며, 북한 인민군의 군사전략적 뿌리로서 모든 군사이론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마스와 엥겔스는 혁명과 전쟁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역할론과 레닌의 계급주의 투쟁론의 불가피성, 스탈린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술 및 정치교육의

70) 박영택, 위의 책, pp. 31-32.



[그림 7] 북한 군부의 당 통제 및 군사지휘체계 영향요인

출처 : 박영택, 『남북한 군사력의 현재와 미래』 (서울: KIDA Press, 2010), pp.52-59

중요성, 모택동의 지구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북한의 창군 및 전쟁 수행 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과학적 학설로서의 막스-레닌주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학설의 도움으로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적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71) 항일무장투쟁은 막스-레닌주의 사상..., 그 원칙들이 조선의 구체적 조건

71) 김일성, 『길림시절』, 『김일성 저작집 제45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에 옹기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일환으로 되었다.⁷²⁾ 모두 다 마스-레닌주의 학습을 열심히 하고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쟁업적과 투쟁경험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⁷³⁾ 모든 지휘 간부들과 전사들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다 이용하여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스-레닌주의 이론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며, 특히 조선 혁명의 노선과 전략전술을 깊이 학습하여야 하겠습니다.⁷⁴⁾

또 다른 북한군 지휘체제 형성 배경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직·간접 경험 요소로서 1930년대의 만주와 북·중 국경 일대, 40년대 초 소련 지역의 열악하고 소수 세력으로서의 활동 경험, 1950년대 한국전쟁의 실패⁷⁵⁾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30년 중국 공산당 입당 이후 조선인부대 지대장 및 공산당 예하 동북항일연군 가담과 1941년 일본군 토벌대를 피해 소련으로 도주하여 소련군 25군 특수부대에 근무하는 등 중국과 소련의 군사체제를 경험하면서 공산주의 군사체제를 답습하였고, 그 투쟁방법을 그대로 인민군에 적용하였으며, 인민군 창군 초기 당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6.25 전쟁은 북한이 소련의 지원 하에 치룬 전쟁이며, 당통제 및 단일군 체제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났는데 현대전에서의 상황도 유사하다.

72) 김일성,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김일성 저작집 제9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73) 김일성, ‘군관들은 부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김일성 저작집 제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74) 김일성,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1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75) ‘1950년 12월 21-23일 사이 별오리회의에서 김일성은 우수한 공군과 해군, 포화를 소유한 적들과 싸우는 특수한 조건에서 전투를 진행하거나 특히 적들의 공습이 심한 조건하에서 산악전과 야간전투에 능숙하지 못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유격전쟁을 강조.’ 함택영, “주체사상과 북한의 국방정책: 자위노선의 업적 및 한계,” 양재인 외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서울: 경남대학교, 1998), p. 168.

< 표 5 > 북한군의 당 통제 및 단일군사체제의 전/평시 장단점 분석

구분	장점	단점
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의 당 통제/동원 활용 용이 - 선군정치 등 국가정책 이용 - 1인 독재체제 호위세력화 - 당·군체제 지속 - 외화벌이/국경통제 등 체제 기여 - 지상군 중심의 군사력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의 정치성향 심화 - 인민의 군 경시 풍조 확산 - 군대의 부패 심화 - 군의 전투력 저하 - 거대규모 군대유지 비용 확대 - 해/공군력/첨단 군사력 약화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사불란한 전쟁수행체제 - 4대 군사노선의 시행 가능 - 군의 당통제/사상 통제 가능 - 남한 점령지역 공산화 등 용이 - 빨치산 활동 등 유격전 용이 - 당 붕괴 시까지 응전 가능 - 속전속결의 전쟁 수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의 임기응변 대응 약화 - 야전군인의 반발/이탈 가능성 - 비대칭 위주 전쟁 지속 곤란 - 해상/공중 대응 능력 저하 - 장기전 시 비축/보급 부족 - 첨단 기술 응용에 한계

북한군의 군에 대한 당통제 및 단일군 체제의 장단점은 ‘<표 5 > 북한군의 당통제 및 단일군사체제의 전평시 장단점 분석’ 에서와 같다. 먼저 장점으로써 첫째, 북한군은 유일지배체제 하의 1인 독재체제를 지탱하게 하는 핵심세력의 역할을 하는데 당이 군을 수령의 군대로 통제하기 때문이다.⁷⁶⁾ 북한 정권은 위기 시마다 북한군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당·정·군 모든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단일군 체제는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심이 짧은 전장을 빠르게 점령하는데 유리하다. 북한군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상전력을 봉쇄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비대칭 전력의 확

76) 북한 인민군의 통제권은 수령에게 있는데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 제55조 11항, 1992년의 개정헌법 제93조에 명시되어 있다.

충에도 주력하였다. 전시에는 당이 전쟁을 주도함으로써 4대 군사노선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였으며, 전쟁을 총력전으로 전개하면서 군사전략인 대량선제공격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군의 사상 통제를 통하여 군대의 이탈을 막고 1인 독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군대의 정치적 역량과 당 통제 능력으로 남한의 점령지역에 대한 공산화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결되려면 끝까지 저항하는 당 통제 하의 세력들을 제거해야만 할 것이다.⁷⁷⁾

북한군에 대한 당 통제 및 단일군 체제는 장점에 비하여 단점이 두드러진다. 평시에는 군부가 군사외의 영역에 진출하여 당·정의 업무에 관여함으로써 정치화되는 폐단이 있다. 군이 선군정치 하에서 민폐를 기치고 부패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군의 훈련이 부실하고 전투력이 저하되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단일군 체제는 해공군력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현대전이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과 장기전 수행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함을 고려할 때 북한의 지상군 중심의 거대 군대 유지는 북한의 현실과 과학기술을 무계체계에 응용하여 첨단화되는 시대적 경향에도 맞지 않다. 6.25 전쟁 시에도 노정된 상황이지만 정치군관이 야전군을 군사적인 범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급박한 전시 환경 화에서 작전의 혼선을 초래하고, 정치적 판단이 전술적 상황보다 먼저 고려되어 전쟁의 주된 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77) 김정기,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국가전략」, 제30권 2호(2024년), pp. 7-18.

2. 북한의 군사력 건설과정과 전쟁준비

북한의 군사력은 6.25 전쟁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위해 건설되고 있으며, ‘<표 6> 북한의 시대별 군사력 건설 주요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준비 목적으로 1950-60년대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 건설 과정을 개관해보면 해방 이후 1946년 8월 15일 보안부대를 창설하고 1개월 후에 이를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로 개칭하였고, 1947년부터 소련의 군사원조로 받은 무기를 바탕으로 3개 사단 규모로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해군은 1948년 9월에, 공군은 소련 유학을 한 신의주 항공대 출신을 주축으로 1949년 8월에 비행대를 창설하면서 출발하였다. 인민군 창군 시 병력은 최대 2만 5천명으로서 소련제 기관총, 박격포, 대전차포, 곡사포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공군, 중공 의용군, 소련군 한인이 주축이었다. 1947년 5월 제105전차연대를 창설한 이후 6.25 직전에는 10개 보병 사단, 1개 전차사단, 5개 경비여단 및 기타 특수부대 등 16개 부대 20만 명 규모로 증강하여 전쟁을 준비하였다.⁷⁸⁾

78) 강석승 외, 위의 책, pp. 138-139; 장명순, 위의 책, pp. 167-170.

<표 6 > 북한의 시대별 군사력 건설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김일성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2 조선인민군 창군 선포 - 1959.1 노동적위대 창설 - 1959.9 북-소 원자력 협정 조인 - 1962.12 4대 군사노선 발표 - 1966.10 경제-국방노선 천명 - 1967.4 124군부대 창설, 1970.9 붉은청년근위대 창설 - 1970대 탄도미사일 개발 이후 1980년대 스커드 B,C 작전배치 - 1980년대 이후 화학무기 생산, 다종의 생물무기 배양/생산 - 1985.12~93.3 핵확산금지조약 가입/탈퇴 등 핵개발 위장, 북미제네바 회담 후 1994.6 IAEA 탈퇴/합의, 1995.12 KEDO-북 경수로 공급 협정
김정일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7 이후 북미회담/KEDO 발족 등 위장공세 지속 -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미사일/스커드-ER 등 작전배치 - 1998.8 노동신문, '강성대국' 정론 게재 - 2002.9 선군 경제노선 제시 - 2002.10 켈리 차관보에게 핵개발 시인 - 2003.1 NPT 탈퇴 - 2003.2~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2005.2 핵무기 제조 보유 공식 선언, - 2006.7 대포동 등 미사일 발사 - 2006.10 핵실험 실시, 2009.5 2차, 2012.2, 2016.2/9, 2017.9 추가 핵실험 - 2010.3 천안함 도발,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김정은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3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 2013.4 광명성 3호 궤도 진입 실패 - 2016년 이후 화성급 탄도미사일 개발 - 2017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 2019.12 핵억제 동원태세 유지 - 2021.1 국방과학 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2021.9~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무력시위 지속 - 2022.9 핵무력 정책법 발표 - 2022.12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 천명 - 2022.12 무인기 5대 MDL 이남 침범, 600mm 방사포 공개

북한의 군사력 건설은 6.25 전쟁 이후 ‘군사자위노선’ 명분의 4대 군사노선이 핵심 정책이자 동력으로 작동하였고, 대량선제기습공격능력을 축적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전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를 수시로 기만하였는데, 특히 핵무기 개발은 철저히 은폐하면서 6.15 정상회담, 6자회담, 경수로 회담 등 위장평화 및 협상전략을 활용하는 등의 상황을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목표로 하는 핵무장을 달성해 왔다. 6.25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도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였으며, 1960~80년대에는 중공업우선정책을 시행한바, 1970년대 초에 만들어진 제2경제위원회⁷⁹⁾와 노동당 군사위원회의 통제 하에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방위산업의 확장에 주력하여 복제 수준의 소화기, 공용 화기, 각종 실탄 및 포탄, 전차와 함정 등을 제작할 수준에 도달하였다.⁸⁰⁾ 1970~80년대에는 군단 및 집단군을 창설하고, 기계화군단 및 기갑군단, 사단의 연단으로의 재편성, 그리고 자주포 군단을 창설하는 등 현재의 군사체계를 완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비정규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8특수군단을 창설하였는데, 1978년에 경보병교도지도국으로 개칭되었다. 이외에도 1959년 1월 노동적위대, 1992년 1월 SCUD 연대 창설하고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였다.⁸¹⁾ 김일성 시대는 재래식 군사력 건설과정에서 미사일 개발에도 주력한바, 핵무기 개발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이며, 화생무기 개발 및 생산능력도 갖추기 시작하였다. 김정일 시대

79)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는 예산평성과 통산적인 병기생산, 전차 및 장갑차, 대공화기, 미사일 및 로켓, 핵 및 화생무기, 함정 및 항공기, 통신장비 등을 관장하며, 금강은행 운영 등 무역에도 관여한다.; 이민룡, 위의 책, pp. 161-163.

80) 장명순, 앞의 책, pp. 226-230; 소련의 지원으로 AK소총 경량화, 경기관총 및 중기관총 제작, RPG-2 로켓포 생산, 82밀리 B-10 무반동포 보유, 박격포 및 고사기관총 생산, 107밀리 방사포 생산, K-61 수륙양용 장갑차 생산, T-59 전차 및 T-62 전차 생산, 해군에서는 소형 어뢰정 P-4, 6 생산, 1,500톤급 호위구축함과 1,400톤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었다.

81) 장명순, 앞의 책, pp. 174-180.

에는 국방력을 현대화하면서 핵개발을 위한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고 대포동 및 잠수함 및 공기부양정 건조 등 대량선제기습공격 전력의 증강에 주력하였다고 진단된다. 김정은은 경제-핵 무력 병진노선을 선포하고 핵능력 고도화 전략에 주력하여 다종의 미사일 발사 및 핵탄두 소형화 추진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유입을 시도하는 등 대남위협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1960-1980년 대 북한의 군사력 건설의 주요 동력은 자위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한반도 적화전략에 있으며, 4대 군사노선과 핵개발임을 알 수 있다.

3.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실체와 위협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은 군사전략인 대량선제기습공격 능력을 위해 증강되어 왔으며, ‘< 표 7 > 북한의 군사력 실체와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위협적이며, 4대 군사노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은 6.25 전쟁과 같은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실체로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며 휴전선 일대와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한이 충돌하여 남북한 전력의 상당부분이 소실될 수준에 도달해 있다. 2022년 국방백서에서 언급한 북한의 정규군은 128만 명이며, 지상군 110만 명, 해군 6만 명, 그리고 공군 11만 명, 전략군 1만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군은 15개 전후방 군단, 5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기계화포병사단, 91수도방어군단과, 국방성 예하에 도로건설군단, 총정치국 예하에 공병군단 등이 편성되어 있다. 장비는 전차 4,300여 대, 장갑차 2,600여대, 야포 8,800여 문, 그리고 방사포 5,500여 문 등이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해 및 서해에 함대사가 있고, 13 전대 및 2개 해상 저격여단 등이 편성되어 있다. 보유함정은 전투함정 420여 척, 잠수함정 70여척, 상륙함정 250여 척, 소해정 2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등이다. 공군은 공군사령부 통제 하에 4개의 비행사단과 2개의 전술수송여단 및 2개의 공군저격여단, 그리고 지상 방공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항공기는 전투기 81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AN-2기를 포함한 공중기동기 350여 대, 헬기 29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762만 여명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교도대 62만 여 명, 노농적위대 572만 여 명(46-60 미만의 남자), 붉은청년근위대 94만여 명(고등중학생 5-6학년), 그리고 인민보안성, 속도전 청년돌격대, 호위사령부 등으로 이루어진 준군사 부대가 34만 여 명에 이른다.⁸²⁾

<표 7> 북한의 군사력 실체와 남북한 군사력 비교(2022.12 현재)⁸³⁾

구분			한국	북한	
병력	계		50만 여 명	128만여 명	
	육군		36만 5천여 명	110만여 명	
	해군		7만 여 명 (해병 2.9만 명)	6만여 명	
	공군		6만 5천여 명	11만여 명	
	전략군			1만 여 명	
주요 전력	육군	부대	군단(급)	12	15
			사단	36	84
			독립여단	32	117
		장비	전차	2,200여 대	4,300여 대
			장갑차	3,100여 대	2,600여 대
			야포	5,600여 문	8,800여 대
			다련장/방사포	31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 유도무기	60여 기(발사대)	100여기(발사대)		
	해군	수상 함정	전투함정	9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50여 척
			기뢰전함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10여 대	810여 대
		감시통제기		70여 대	30여 대
		공중기동기		50여 대	350여대(AN-27 포함)
		훈련기		190여 대	80여 대
		헬기		700여 대	29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762만여 명

82) 북한의 준군사부대는 당 군정지도부와 민방위부의 통제를 받으며, 소화기 및 공용화기로 무장하고, 연간 16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다.

83) 국방부, 위의 책, p. 334.

북한은 대량선제기습공격을 위해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으며,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M1985 및 M1991 다연장로켓포, 장사정포로서 170밀리 자주포(사정거리 최대 54킬로미터) 및 240밀리(사정거리 최대 60킬로미터) 및 300밀리 방사포(KN-09, 사정거리 최대 200킬로미터)와 600밀리급 대구경 방사포(19-5SRBM, 최대사거리 400킬로미터 추정)는 우리의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현 진지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전 경고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인 대량집중 사격이 가능하다.⁸⁴⁾ 북한 지상군은 우리의 3배에 달하는 지상군 병력과 포병 전력으로 전쟁 초기에 대량의 전투력으로 기습효과를 달성하고 기동여단을 편성하여 공격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재편하였다.

해·공군은 전체 전력의 약 60%와 40%를 각각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면서 지상군의 기습공격전략에 호응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고속함정(고속상륙정 및 공기부양정)과 잠수함을 활용한 기습공격을 위해 로미오급 잠수함과 소형 잠수함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상교통로 차단,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부대의 침투 지원 등이 가능하다. 공군 또한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특수전부대의 침투능력이 있다. 또한 후방지역에 대해 4대 군사노선의 결과물로서 북한의 전 지역을 요새화하여 생존성 보장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시설 및 장비를 대대적으로 갱도로 숨기거나 위장하고 다수의 모의 장비를 설치하였고, 지대공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SA-2와 SA-5 지대공 미사일 등을 활용하여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GPS 전파 교란기 혹은 기만기를 개발하여 정밀유도무기의 회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⁸⁵⁾

84) 김강녕,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과 한국의 대응,” 「군사논단」, 제113호(2023년 봄), pp. 17-19.

85) 국방부, 위의 책, pp. 26-29.

한편, 북한군은 후방에서의 비정규전 수행을 위하여 20만 여명에 이르는 특수작전군을 운용하고 있다. 특수작전군에는 11군단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각군 및 제대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 잠수함,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과 II장에서 언급한 하이브리드전을 실행할 것이다. 북한의 11군단(일명 폭풍군단)은 북한-러시아의 군사협정에 의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되어 김정은이 가장 아끼는 정예병력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11군단은 1986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을 기도한 124군을 모체로 창설되었으며 후방에서의 작전을 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산악지형에서의 고강도 훈련 및 작전에 익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⁸⁶⁾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장비 측면에서 신형과 구형장비가 혼재되어 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다. 북한의 전차는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T-62를 개량한 천마호 전차로 교체되는 중이며, 장갑차도 개량된 BMP 계열의 장갑차로 교체되고 있으나 북한군의 장비 전반이 노후화된 상태다. 그러나 한반도 중심이 짧아서 초기 선제공격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될 것이다.⁸⁷⁾ 또한 북한군은 병력 측면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며 GDP 대비 군사비 비율도 12% 수준이며, 지상전력의 부대수도 < 표 7 > 에서와 같이 기습공격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116개가 더 많다. 또한 보병부대 비중이 45%로 우리는 64% 정도로 화력, 기계화, 기갑 및 특수전

86) 「DAILY NK」, 2024년 10월 30일자 등 국내 언론 보도.

87) 남만권, 위의 책, pp. 109-116.

전력의 비율이 우리보다 높다. 특히 특수전 전력은 22개 여단에 25개 정찰대대가 편성되어 있어서 위협적이다. 북한은 전면전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화력으로 우리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전차를 활용한 전격전을 수행할 것이다.⁸⁸⁾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전력 증강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구축하고 있는 첨단 군사력으로 인하여 과거 북한이 우위를 점하던 양적 우위의 장점이 퇴색하고 있다. 아울러 월등한 한미 전력을 감안하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위협도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1990년대 초 발발한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재래식 병력이 다국적군의 압도적 첨단전력에 의해 궤멸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03년의 이라크전에서도 다국적군의 스텔스기 등 최첨단무기에 의해 이라크의 100만 병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헤즈볼라의 유격전과 하이브리드전이 효과를 보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추구하는 것이 비정규전과 비대칭 전력이며, 그 핵심이 미사일 공격능력을 발전시키는 핵능력 고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IV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88) 이민룡, 위의 책, pp. 106-116.

4. 사이버전 능력과 드론 위협 등

현대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AI,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과 인터넷 체계, 고집적 반도체, 스텔스, 사이버 공간 연계 등 최신의 과학기술이 응용된 최첨단무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 및 이스라엘-헤즈볼라전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북한이 반드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전과 드론전의 위협을 일깨워주고 있다. 먼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살펴보면 북한의 오극렬이⁸⁹⁾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1990년대 초에 평양에 미림대학을 설립하여 컴퓨터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김정일은 2003년의 이라크전 이후 정보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관련 조직을 구축하고 사이버전 능력을 축적해 왔다. 북한의 사이버전 조직은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전 지도국(121국), 91소, 31소 및 32소, 자료조사실, 기술정찰조, 110호연구소 등이 있는데 다양한 사이버 공격능력이 있다. 이밖에도 연대 규모의 전자전 부대, 제2경제위원회 산하 전자총국, 미림대학 및 모란봉대학, 중국의 거점망 등이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인력은 2013년 기준 전문인력 1,000여 명과 지원인력 3,000여 명 이상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이버 전력의 3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⁰⁾

사이버안보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및 국가 전산망에 대한 일체의 위협으로서 사이버 전쟁·분쟁·테러·범죄 등으로 표현되는

89) 오극렬은 김정일의 측근으로서 만경대 혁명학원 1기 출신이며,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소련 프룬제군사대학에 유학한 경력이 있다. 공군사령관, 총참모장,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 민방위부장, 작전부장(현직) 등을 역임했다. 빨치산부대 대원이었던 오중성의 외아들이며 김일성을 살리기 위해 일본군을 유인해 싸우다 전사한 오중흡 연대장의 조카다. 어릴 때부터 김정일과 형제처럼 자라 김정일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으며, 전형적인 작전통이고, 영어 및 노어에도 능통하다. 작전부장으로 오랜 시간을 당에서 보낸 인물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기여하였다.

90) 조성렬, 위의 글, pp. 126-127; 임철균 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구상 연구,”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23호(2023.11), pp. 61-62.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공간의 정보 수집, 작성 및 처리, 전달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추적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사이버 인프라를 공격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개인에서 국가전산망에 걸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공격하는데, 해킹, 바이러스 유포, 폭탄메일, 절취 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⁹¹⁾

현대의 사이버전은 사이버 공간의 비가시성·초월성·연결성·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그 양상이 확장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시현된 사이버전에서는 2022년 1월 개전 초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70여 개 정부부처 및 정부·금융·군 웹사이트에 대한 대규모 DDoS 공격과 정보전을 통한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저항의지를 말살하는 사이버 심리전과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유포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서방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국영방송 공격 및 군 작전통신 정보탈취 및 해킹 등으로 반격하며 사이버전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바, 전시의 사이버전 양상을 보여주었다.⁹²⁾ 사이버 안보는 국가의 명운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⁹³⁾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여 전/평시 우리 국가 및 군의 중요한 지휘통신 체계를 공격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국에서 인터넷을 이용 해커형태로 사이버 심리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우리 군의 C4ISR체계를 표적으로 바이러스 유포, 비밀자료 해킹과 금융/교통/물류/통신의 국가 기간통신망 마비 시도, 그리고 대중매체를 선점하여

91) 조성열 앞의 책, pp. 121-125; 유호근, “비전통안보 이슈의 국제정치: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7집 1호, pp. 230-237.

92) 정동, 위의 글, pp. 4696-4700; 임종인, “사이버전 현황과 대응방안,” 『외교』, 제144호(2023.1), pp. 110-112.

93) 조성열, 위의 글, pp. 121-125.

선전선동 및 역정보 유출 방식의 심리전을 병행한 운용 방식을 보일 것이다.⁹⁴⁾

다음으로 드론전은 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전시에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대전에서 드론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드론(drone)은 ‘벌이 윙윙거린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는데, 상업용과 전쟁에서 무인항공기(UAV, 드론)는 활용성이 증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무기체계로 부상하고 있다. 걸프전 이후 정찰용/공격 드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 졌는데, 북한의 드론전 능력도 이에 비례할 것인바 드론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드론은 1935년 영국군의 대공포 훈련용 표적으로 처음 사용하였는데, 작금에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드론의 분류는 항공안전법에서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무인비행기로, 150kg 이상은 무인 항공기로 정의하며, UAV(Uninhabited Aerial Vehicle)는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주로 민간 기업에서 개발 및 활용한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한 도심 항공교통으로서 기체, 운항,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드론은 또한 형태와 운용 방법에 따라 분류되는데, 형태로서 고정익형(장시간 운용 가능, 군사 공격용에 적합), 회전익형(고정 비행 가능, 감시 정찰 및 화물 수송에 용이), 혼합형(고가로 제한적 사용), 카고 드론(상용 서비스, 물자보급, 군사용 물자 이송) 등이 있다. 드론의 사용 영역은 군사정찰 및 공격, 방재, 수색/구조, 교통 통제/범죄 감시, 기상 및 재해 감시, 측정 및 건설, 산림 감시 및 화재 예방 등으로 광범위하다.

한편, 드론산업에서는 최근의 주요 추세인 민군겸용기술(dual-use) 방

94) 정동, 위의 책, pp. 4697-4699, 4701-4703.

식이 대세인바, 군사기술을 민간이 사용하는 스핀 오프(spun-off)와 민간 기술을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스핀 인(spun-in)으로 구분한다. 또한 드론은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구분하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드론 기업 DJI는 2006년에 창업하여 전 세계 드론 산업 견인 및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군사용 드론시장도 장악하여 시장규모가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보잉 및 록히드 마틴(미국), 에어버스(유럽), 릴리움 및 E-볼로(독일), 한화 및 현대자동차(한국) 등이 군용드론을 개발 중이다. 주요 기종을 살펴보면 록히드 마틴 및 카만 에어로스페이스 합작사의 K-MAX(무인헬기, 최대속도 185.2km/h, 운용 반경 1,852km), 미군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의 드론(MQ-1C, RQ-7, Puma, 스위치 블레이드, Phenix Ghost, Raven, Skydio, Black Hornet 등), 이스라엘의 군사용 드론인 Searcher2-3, Skylark 1-3, HERO-120/250, MAGNI, Rotem L 등이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와 컨소시엄 형태로 UAM을 개발하고 있다.⁹⁵⁾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드론이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함에 따라 도청, 해킹, 스푸핑(신호에 침투, 상대방이 정상적 접속인 것으로 인지토록 하는 기술, 피싱이나 악성 코드 전송 등에 활용), GPS 신호 위조, 재밍 등에 취약한바, 드론 운용을 방해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정/변조, Dos 혹은 DDos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드론시스템이 드론 비행체(무선 송/수신 장치, 비행통제 장치, 구동장치, 탑재장치), 무선 통신 기술(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시스템), 지상 관제 시스템(조종사, 유지보스 시스템, 지휘 및 임무 분석 등) 등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⁹⁶⁾ 따라서 물

95) 이성욱, “드론과 UAM 산업의 전망,” *AUTO Journal*, 2021. 07, pp. 38-42.

96) 하종기 외, 위의 책, pp. 145-186.

리적으로 드론을 탈취당하면 자료 유출, 위조, 개인정보 및 군사정보 유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드론의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지상 통제 시스템과 드론 간 기밀성, 유효성, 무결성 보장, 암호기술이나 보안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 대상은 드론 통제장치, 내장형 소프트웨어, 키/칩 정보, 유통 데이터, 주파수 채널, 운영자 등이며, 악성코드 감염, 인증 취약점, 유무선 통신 등,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GPS 재밍과 신호 위조 등이 주요 공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드론의 GPS 수신기 기능 보완, 항법 시스템 대체 및 보완 활용, 주파수의 호핑 주기 수시 변경, 독자적 위성 항법 장치 개발 사용, 인증방식 강화, 복제 기능 방지, 소프트웨어 보안 기능 강화, 생산 및 공급 과정 안전 강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⁹⁷⁾

드론 기술의 민군겸용 추세에 의해 군용 드론도 획기적으로 발전 중인 바, 군사용 드론의 장점은 인명손실 최소화, 전투의 효율성 증대, 레이다 회피 가능, 경제적 손실 최소, 다양한 전투에서 활용 가능, 단기간 교육으로 운용 인력 양성, 원거리 작전 가능, 다양한 정찰 및 무기체계 연동 가능, 적 방공망 교란, 적 레이더 파괴 및 제압 등으로 그 활용범위가 크다.⁹⁸⁾ 반면에 군사용 드론 체계 운영의 단점은 인력 비용 증대 및 고정 인력 필요, 기상 악화 등에 취약(정풍 9m/s, 측풍 5m/s 이상, 안개 및 강우 등)한 것 등이 꼽히고 있다.⁹⁹⁾ 특히 군사작전에서 군집 드론의 활용이 예상되는데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위해 수십 대 이상의 드론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어서 미래전에서 소요 증대가 예

97) 진미리 외, “UAV 대상 AI 보안 공격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 14권 제1집(2024), pp. 20-24.

98) 장용진 외, “군사기술 네트워크가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경영대학 연구서」 8월호, 2021년, pp. 120-124.

99) 편석준 외, 위의 책, 2015), pp. 11-104; 하종기 외, 위의 책, pp. 19-33.

상된다.¹⁰⁰⁾ 군집드론에서는 분리와 응집, 정렬 기술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미국, 중국, 영국 등에서 개발 중이며, 우리 육군에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드론전 위협에 대비하여 對드론 방어체계도 개발되고 있는바, 對드론이란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적 공격과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테러 및 불법 드론 사용 등에 대비하는 개념이다. 對드론 개념은 C-UAS(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s)로 표기되는데, 많은 국가에서 對드론 방어 기술에 예산을 투입하여, 중요시설인 공항, 원전 등의 시설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 인천공항에도 불법드론 침입으로 항공기 5대가 회항한바 있는데, 세계 각국 공항 등에 유사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IS 등에서 급조 폭탄 등을 활용하여 정규군 및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對드론 체계는 탐지/식별과 타격(Hard Kill/Soft Kill)으로 분류되는데, 탐지는 음향, 레이더, 무선주파수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며, 식별은 드론 기종 판단, 전파를 통한 인식, 위법 행위 등을 판단한다. 타격은 화약, 레이저 등의 물리적 타격과 재밍 및 스푸핑 등을 활용한다. 일례로 2019년 록히드 마틴이 레이저 무기 ATHENA(Advanced Test High Energy Asset) 시스템을, 2021년 4월 미 해병대가 저고도 대공 레이저 무기 CLaWS(Computer Laser Weapon System)를 각각 개발한바 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라파엘사는 對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돔(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로켓 등을 활용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축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완할 아이언 빔을, 영국에서는 레이저 빔 개발을 위한 아이리스 펀드를 운영하여, 국방성의 지휘 하에 QinetiQ사가 개발한 드래곤

100) 설현주 외, “4차 산업혁명과 항공무인체계 발전방향,” 「한국군사학논총」, 제6집 제2권(2017년 12월), pp. 222-226.

파이어 개발한바, 미국의 차세대 전투차량인 Boxer에 탑재할 예정이다.

2012년 4월 이후 북한의 각종 행사 시 무인기를 공개한 이후 (주로 중국제 드론 DJ로 추정되는) 촬영용 드론이 등장하였고, 북한 언론에서 각종 농업용 드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중국제 D-4, 미국제 MQM-107D, 구소련제 Tu-143 Reys, 러시아제 Pchela-1T 등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기술을 보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무인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바, 정규전 및 비정규전에서 정찰, 저격, 폭파를 넘어 화생무기를 운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북한의 군사전략인 대량선제기습공격전략과 하이브리드전에서 운용이 가능하여 매우 공세적이고 위협적이다.¹⁰¹⁾

북한도 드론을 대남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바, 1990년 말부터 다양한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여 왔으며, 다양한 종류의 장거리 정찰 및 자폭형 드론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1,2급(작전반경: 15-20 킬로미터), 쉬멜(작전반경: 60 킬로미터), 방현-1,2호(작전반경: 60 킬로미터), 두루미(작전반경: 350 킬로미터), 청매(작전반경: 1,000 킬로미터) 등이 그것이다.¹⁰²⁾ 2014년 3월 24일 경기 파주 봉일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드론은 중국의 SKY-09 기종을 변형하였고¹⁰³⁾, 2014년 4월 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드론은 파주의 드론과 유사하나 체코제로 판명되었다. 2014년 4월 6일 강원도 삼척 및 2014년 9월 15일 백령도, 2017년 강원도 인제에서도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었다.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서울 영공에 침투하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성이 있음을 알렸는데 북한의 5개

101) 김강녕,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 「한국과 세계」 제5권 2호, 2023년, pp. 206-209, 210-211.

102) 이기진 외, “북한 소형드론 위협을 고려한 對드론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제13집 1권, 2024년, pp. 83-84.

103) 제원은 날개 폭 1.92미터, 동체 길이 1.43미터, 높이 55.7센티미터, 무게 15킬로그램으로 캐논 EOS 550D를 장착하였다.

비행체가 강원도 금강군 등에서 이륙하여 서울, 강화, 파주 일대를 약 7시간 정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비행체는 날개 전장 2m급에, 100km/h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⁰⁴⁾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으로 우려되는 점이 드론의 이양이다. 김정은이 2021년 1월 “500킬로미터 전방 중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와 타격장비 개발을 2025년까지 마칠 것”을 지시¹⁰⁵⁾한 바, 드론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중동국가에서 도입해 개조한 미국산 모델 셋별-5, 9형은 2023년 7월 28일 김일성 광장에서 공개되었는데, TNT 40킬로를 장착할 수 있는 자폭형 드론으로 평가되었다.¹⁰⁶⁾ 2023년 9월 김정은 방러 시 푸틴이 자폭 드론 5대와 정찰드론 1대를 선물했는데, 러시아가 이란의 샤헤드-136과 131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란의 드론 기술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¹⁰⁷⁾ 북한의 드론 위협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김정은이 2024년 8월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이스라엘제 하롭 및 히어로 30과 러시아제 란셋-3와 유사한 2개의 자폭드론 형태의 무인기 공격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¹⁰⁸⁾ 북한은 무인 헬기 등 1,000여 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상당한 소형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이란 등의 드론 역량을 도입하고 있는바, 유사시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AN/TPY-2에 대한 레이더 공격을 통해 미사일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⁹⁾

104) 2022년 12월 17일자 국내 언론 보도 자료 참고.

105) 「연합뉴스」, 2023년 6월 15일자.

106) 연합뉴스, 2023년 10월 14일자.

107) 「The JoongAng」, 2024년 4월 19일자.

108) 「서울신문」, 2024년 8월 27일자.

109) 서강일 외, “소형드론 위협 사례와 對드론체계 발전방향,”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and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2, March 31, 2023, pp. 326-332.

대한민국은 산악지형과 3면이 바다이고 도서가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드론의 중요성 및 활용도가 크다. 우리 육군도 2021년 3월 ‘육군 드론 전력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드론의 전력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용 드론은 정찰용, 공격용, 지원용으로 구분하고 형태로서 회전익과 멀티콥으로 분류하는데, 회전익이 92%, 멀티콥이 88% (미 육군은 고정익 70%, 투척형 47%)를 차지한다. 우리 군은 작고 가벼운 근거리 자폭형보다는 30~40kg급의 무장형 드론을 사용하는데, 정책 및 규제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바, 軍내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하며, 드론 운용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도 부족하고, 국내 관련 산업도 국산화율이 저조하고 주 동력원의 경우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실정이다.¹¹⁰⁾

110) 장순배, “한국군 드론 운영 발전방향 연구,”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6, No. 2, 2024, pp. 122-128.

IV. 북한의 핵무장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1. 북한의 핵무장의 의미와 배경 및 활용 전망 분석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지역 및 체제 수준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 > 북한 핵무장의 파급 및 영향 요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 내부, 남북관계, 지역 및 체제 수준, 그리고 비핵화 측면에서의 의미와 파급 요인이 심각하여 그 해결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장의 의미와 파급요인에서 북한의 1인 독재체제 유지와 군사적 능력 확대를 위한 노림수가 핵무장의 배경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 1인 독재체제의 연장과 세습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일가가 그동안 북한의 역사에서 기록한 것은 6.25 전쟁과 북구로 인한 피폐함, 피로 점철된 숙청의 역사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와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의 곤궁함, 당적지도로 지속되는 24시간의 감시체계, 군사국가 하의 청년들의 장기간의 군사복무와 전쟁 연습,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3대 세습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 왕조는 핵무장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선점하며 독재와 세습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기제로 삼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 군부와 주민들에게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체제 경쟁에서도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북한은 유엔 및 서방의 경제제재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순간 해소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 표 8 > 북한 핵무장의 파급 및 영향 요인

구분	주요 내용
북한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장 강화로 체제 유지 및 연장 - 핵무기 유지 비용 과다, 경제난 지속 - 주민 결속 및 체제 홍보 수단 - 군사적 모험 및 도발 가능성 증대
남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위협 및 강대강 대치 상황 지속 - 북한의 WMD 위협 확산 및 남한의 군사대비 강화 압박 - 남한의 핵무장 논의 증대 - 남북관계 핵결책 악화 및 관계 악화 - 통일 논의 증대 걸림돌
한반도 비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 비관론 증대, 전술핵 배치 등 부상 - 핵도미노 위험성 증대로 지역 안보 불안 심화 - 주변국간 군사전략적 대응 태세 심화
북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 유출 및 테러 연계 가능성 증대 -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체제불안 증폭 -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로 한반도 불안정성 증대 - 북한의 대외도발 및 모험주의로 지역/세계 안보 유발 - 미사일 발사/핵실험 도발로 분쟁 위협 증대
동북아/체제 불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 간 북핵 대응 방안 충돌 - 북중러 연계로 지역안보 불안정성 증대 - 북핵무장과 패권경쟁 연계 시 해결 난항 - 한반도 통일문제의 복잡성 - 국제적 비핵화 악영향 및 통제체제 불안정성 증대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핵개발과 경제체제로 인한 경제난과 희생불가 상태 지속, 핵무장에 몰입하는 김정은의 독선적 행태와 4대 세습 추진으로 북한은 계속 몰락하고 있다.

둘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전력 증강에 주력하여 한반도 분쟁의 위험성은 증대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하여 남한도 대응체제를 추진하다 보니 국방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바, 한반도는

완충지역에서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북한은 공화국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노골적으로 남한에 대한 핵사용을 위협하며 핵을 사용 가능한 무기로 만들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에 몰입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동일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 규정하면서 1개 국가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장만을 믿고 남북관계 단절하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시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2000년, 2007년, 2018년 등 3회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2019년에는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와중에도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핵무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담보로 빅딜을 시도할 것이나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점증하는 제3세계와 테러단체 등의 핵개발 기도와 북한의 존재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향후 핵 도미노를 막고자 하는 비확산체제에도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넷째, 핵무장을 하면서 비정상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북한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3만 5,000명에 이르고 탈북하여 중국에 숨어사는 북한주민이 상당수다. 북한이탈주민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전하는 북한은 당장 내일 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통제와 굶주림, 인권상실, 감시가 일상화된 북한의 미래가 없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장에 몰입할수록 경제적 피폐와 탈북행렬이 이어지는 북한의 임

지는 동북아 및 전 세계에 부정적으로 각인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및 핵기술 및 군사기술의 유출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는 북한의 거래 목록을 키우고 불법적인 거래의 확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동북아 및 체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1차적으로 유엔에서 막아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모호한 태도로 인하여 강력한 군사적 제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패권경쟁을 유발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여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핵무장은 국제 비확산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미래 또한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되는 상황이므로 통일로 가는 여정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가? 북한의 핵무장 배경 및 활용전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공화국핵무력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핵억제 태세(nuclear deterrence posture),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원칙, 핵 선제사용 교리¹¹¹⁾, 표적선정(nuclear targeting) 원칙, 핵 지휘통제(nuclear command and control) 체계 등에 관한 개별적인 전략개념들의 총합으로서 정의한다. 첫째, 핵보유국가의 채택 가능한 핵억제전략태세는 ‘최대억제(maximum deterrence)’, ‘제한억제(limited deterrence)’, 그리고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¹¹²⁾ 최대억제는 적의

111)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고교범10-2(2004.12).

핵능력 제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공자의 손실은 최대한 회피할 수 있도록 핵선제타격의 이점을 강조하는 전략개념이다. 제한억제는 강력한 핵교전 능력보다는 제한적인 핵교전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억제개념이다. 최소억제는 대도시나 산업시설에 대한 대량 핵보복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핵능력에 기초를 둔 억제개념이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북한이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핵능력이 월등함을 고려하여 대북 선제공격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핵억제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진단되는 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한국의 재래식 연합전력에 대비하고, 북한 체제 및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제한된 자원 및 핵전력규모, 경제적 상황과 기술수준, 그리고 지휘통제의 용이성 등을 상정할 것이다.

둘째, 대량보복 원칙은 적의 핵 또는 재래식 선제타격에 핵보복을 가하는 대응개념이다. 북한이 SLBM의 개발과 핵무장 고도화에 주력하는 것은 위의 대량보복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미국이 표명하고 있는 ‘적대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독트린이나 급변사태의 발생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단으로서 강력한 대량보복을 천명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미동맹 전력과의 대결구도에서 대량보복 원칙을 유효한 전략으로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핵 선제사용 정책은 적의 공격개시 이전에 적보다 우선적하여 핵무기를 사용하는 군사개념이다. 선제사용 개념은 적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한 대량보복을 실시하는 경우와 적의 핵공격 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핵공격을 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데 북한은 핵무력법령에서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한반도 분쟁에서 체제 붕괴 위기 시 선제 핵공격 가

112) Alastair Iain Johnston, “China's new “old thinking” ,”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3(Winter 1995/6).

능성이 있다. 넷째, 핵표적 선정 교리(nuclear targeting doctrine)는 핵 공격 대상으로서 표적을 선정하는 핵전략 수립의 필수적 요소이다.¹¹³⁾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은 대군사 표적선정(counter-force targeting)과 대가치 표적선정(counter-value targeting)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전략적 타당성과 자국의 기술적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 지휘통제체계(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는 유사시 핵무기의 사용승인, 명령전파 및 하달, 명령이행 및 운용과 관련된 권한, 조직, 통신망 및 경보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수렴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통제권한을 총참모부에 위임한 분권화된 지휘통제 체계를 구성한다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를 갖추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승인되지 않거나 사고에 의한 핵사용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반면 최고정치지도자에게 통제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예기치 않은 핵사용은 예방할 수 있겠지만 적의 지도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연구자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전략을 중심으로 ‘<표 9 > 북한의 핵무장 배경 및 활용 전략 진단’ 처럼 6개의 배경 및 활용 전략을 진단하였다. 첫째, 북한의 핵무장은 1인 독재체제 및 세습을 위한 수령의 업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각인되고 있다. 억압과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줄만한 것이 핵무장뿐이다. 김정은이 각종 군사 행사 및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등장하면서 김주애가 동행하는 것도 핵무기와 수령, 그리고 세습 권력을 일체화 하려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격차가 심화되고

113) Desmond Ball and Jeffrey Richelson, *Strategic Nuclear Targetting*(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참조.

< 표 9 > 북한의 핵무장 배경 및 활용 전략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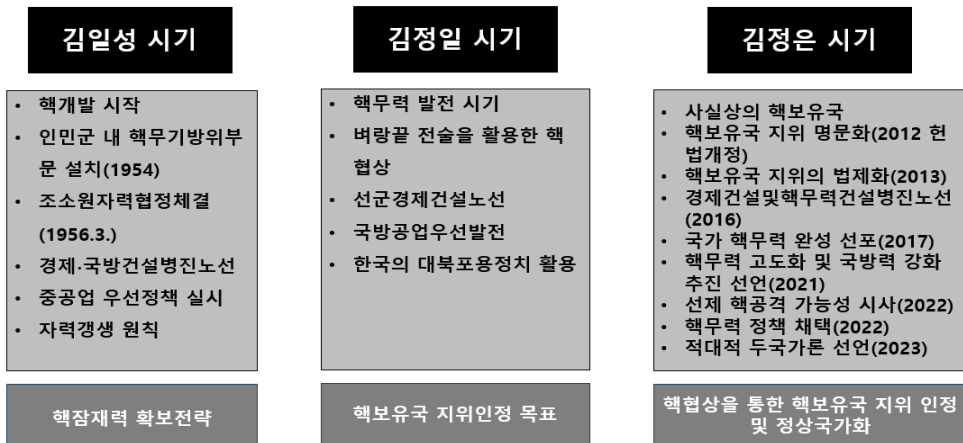
핵무장 주요 배경
① 1인 독재체제 유지 및 체제 결속 - 세습 및 유일지배체제의 당위성 확보와 장기 지배 - 주민억압 및 경제난 회피 명분 추구 ② 한미 연합전력 대비 핵억지력 구축 - 월등한 한미전력 대비 비대칭 전력 구축 - 대미 협상 기제 및 통미봉남 수단 활용 ③ 한반도 적화통일과 대남 위협도발 수단 확보 - 대남 협상 주도 및 경제 지원 협박 활용 - 한반도 무력적화 수단 및 도발의 주요 수단 ④ 북중러 군사 연계 및 분쟁 시 지역/체제 확산 기도 - 국제사회의 북핵 찬반 세력 획책 및 북중러 연계 기제 - 한반도 분쟁 시 대미일 공격 협박으로 확산 시도 ⑤ 핵보유국 지위 확보 통한 국제적 체제 회피 및 생존 - 핵보유국 인정 시 제재 철회 및 경제 지원 기대 -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환상 ⑥ 제3세계 및 테러단체와의 연계 및 영향력 확대 - 핵보유 시도 제3세계와 연대 선구자적 역할 자처 - 핵무장 기술 유포 및 여타 무기 밀거래 가능성 증대

있는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을 극복하고 억지력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관계와 통일의 과정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남북대화 혹은 협상에서 핵카드를 단골 메뉴로 꺼내들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남한을 핵볼모로 삼으려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무장은 북중러 군사동맹의 기제로 활용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모하고 도전적인 북한을 앞세워 국제

군축기구들과 미국의 공세를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에게는 이들이 든든한 뒷배가 되는 셈이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 확전을 의미하므로 그 해결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 생존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핵개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은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면서 스스로 핵보유국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문제를 일시에 해소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무장을 통하여 핵무장을 갈망하는 제3세계 국가 및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이들과 불법적인 무기거래와 기술유출을 의심받고 있는데, 핵확산의 관점에서의 북한문제는 국제사회의 가장 난해한 이슈가 될 것이다.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기반구축·본격 개발/고도화 추진

북한의 핵개발은 3대에 걸쳐 때로는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김일성은 핵개발을 시작하였고, 김정일은 핵무력화로의 발전을 추진하였고, 김정은이 이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림 8] 북한의 3대 정권별 핵전략’은 북한 핵개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근간으로 국방부에서 설정한 핵 기반시설 구축→본격 개발→고도화의 3단계 과정을 기반시설 구축(1단계)과 본격개발/고도화(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핵무기 개발의 3대 요소인 핵물질-기폭장치-투발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와 이를 실행할 인재 양성에 착수하였다. 먼저 북한은 ‘< 표 10 > 북한의 핵무장 기반구축 및 은폐단계’에서와 같이 기초연구, 인력 양성 등 핵에너지 활용을 위해



[그림 8] 북한의 3대 정권별 핵전략

출처: 김재희, “북한 핵전략 변화에 따른 한국외교의 방향,” 「접경지역통일연구」, 제8권 제2호(2024년), p. 181.

< 표 10 > 북한의 핵무장 기반구축 및 은폐단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6년 김일성대 핵물리 강좌 개설, 국가과학원에 핵물리 실험실 설치, 1959년 북한-구소련 원자력협정 체결 - 1962년 구소련의 연구용 원자로 IRT-2000형 도입 - 1966년 북소원자력협정체결, 대규모 과학자 파견 교육 - 1965년~ 영변 핵단지/우라늄 광산/정련시설 등 건설 - 1974년 북한 전역에서 우라늄 탐사 실시 - 1980-86년 5MWe 실험용 원자로 건설 - 1982년 박천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가동 - 1983년~ 고성능 폭발 실험 - 1985년 50MWe 원자로 착공 및 재처리시설 착공, 1986년 가동 - 1987년 영변 핵연료 가공공장 완성 - 1989년 태천에 200MWe 원자로 착공(완공 연기) - 1990년 재처리시설에서 대규모 테스트 실시 평산 우라늄 정련/변환시설 가동 - 1991년 북, IAEA이사회에서 '핵안전협정'서명 거부 - 1991. 12 김일성, 핵개발 능력 없다고 공언 - 1991-1993 북한-IEAEA간 핵사찰 공방 - 2002. 10 미국,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시인 사실 발표 - 2003/2006년 재처리 통한 핵물질 확보 - 1993.3-2005년 북한 NPT 탈퇴 후 KEDO·6자회담·탈퇴반복 등 핵개발 은폐 전략 구사 및 북핵 관련 공방 지속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핵물리강좌 개설 및 국가과학원(구 과학원)에 핵물리실험실을 설치하고, 1962년에 구소련의 연구용 원자로 IRT-2000형을 도입하였다. 중국과 소련의 기술지원을 얻기 위하여 '북소 원자력협력협정' 과 '북중 원자력협력협정도 체결하였다. 이후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 조성, 평산·순천·박천 등의 우라늄 광산개발과 우라늄 정련시설 등 핵시설 건설을 추진하였다.¹¹⁴⁾ 또한 핵물질의 생산을 위해 1980-86년에 5MWe 실험용 원자로를, 1985년에 50MWe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을 착공하였고 1986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1987년에 영변에 핵연료 가공공장을 완성하였고, 1990년에는 재처리시설에서 대규모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평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도 가동하였다. 1998년부터는 고성능 폭발 실험이 지속되었으며, 중국과 구소련의 미사일을 역설계 및 수출하는 중동 커넥션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해 1993.3-2005년 간 NPT 탈퇴 후 KEDO·6자회담·탈퇴변복 등의 북핵 관련 공방을 지속하였다.

핵개발 본격화/고도화 단계에서는 ‘< 표 11 > 북한의 핵무장 본격 개발/고도화 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노골화되었다.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기구의 문제거리로 등장하였다. 이후 북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로 이어져 봉합된 적도 있었으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지속되었고,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의 동결 해제, 사용후 핵연료봉의 재처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물질 생산이 재개되었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핵능력 고도화 단계(2006년 이후)에서 북한은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탄

114) 문장권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증강에 대한 연구, 「통일연구」, 제27권 제2호(2022), pp. 92-97.

두의 위력 증대, 미사일 탑재, 대량생산 등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이후 3차(2013.2), 4차(2016.10), 5차(2016.9), 6차(2017.9)의 핵실험 실시하였다.¹¹⁵⁾ 북한은 2012년 이후 경제-핵 병진정책을 추진하면서 핵무력 구축에 주력한바, 2013년 이후 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5,17,18,19 등)·SLBM·600mm 초대형방사포 등의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성과에 고무되어 2013년에는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발사국 지위 영구화를 언급하였고, 2013년에는 핵보유국 법령을 채택하여 핵사용을 노골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핵무력의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중화를¹¹⁶⁾ 기반으로 핵무장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¹⁷⁾

북한은 2017년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이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억제력 동원태세 유지 및 정면돌파전’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설립일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빠르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바 있다. 202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여 대남 전술핵무기 대량생산과 신형 ICBM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중점과업으로 지시하였다.¹¹⁸⁾

115) 이영철,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외전략의 공세적 변화,”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5 No.3(2024), pp. 857-860.

116) 북한은 2013년 5월 21차 노동신문과 2016년 9월 9일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하여 표준화는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핵탄두를 표준화하고, 규격화는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핵탄두와 그 부품을 규격화하며, 소형화는 핵탄두의 폭발력이 15kt 이하인 무기를 만들고, 경량화는 미사일 탑재를 위하여 핵탄두의 총체적 질량을 가볍게 만들며, 다중화는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17) 국방부, 앞의 책, pp. 338-340.

118) 문장권 외, 위의 글, pp. 98-106.; 국방부, 앞의 책, p. 21.

2023년에는 탄도미사일 5종, 순항미사일 2종, 수중공격무인정 1종 등 8종의 핵탄두 투발수단을 개발 배치를 주장하였고, 2022년 이후 김정은은 ‘핵탄두·핵물질 기하급수적’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¹¹⁹⁾

< 표 11 > 북한의 핵무장 본격 개발/고도화 단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2 핵무기 보유 선언 - 2006.10 1차 핵실험 이후 2차(2009.5), 3차(2013.2), 4차(2016.10), 5차(2016.9), 6차(2017.9) 핵실험 실시 - 2012.4 경제-핵 병진정책 추진 - 2013년 이후 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5,17,18,19 등)·SLBM·600mm 초대형방사포 등의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발사 - 2013. 3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발사국 지위 영구화 언급 - 2013.4 핵보유국 법령 채택 - 2017.11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핵무장 고도화 달성 발표)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종화 - 2019.12 핵 억제력 동원태세 유지 및 정면돌파전 제시 - 2021.1 제8차 당대회에서 핵능력 고도화 위한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2022.9 공화국핵무력정책법령 채택 - 2023년 탄도미사일 5종, 순항미사일 2종, 수중공격무인정 1종 등 8종의 핵탄두 투발수단을 개발 배치 주장 - 2022년~ 김정은, ‘핵탄두·핵물질 기하급수적’ 생산 독려¹²⁰⁾

119) 「노동신문」, 2024.9.13.; 2023.3.28.; 2023.3.20.; 2022.12.13.

120) 「노동신문」, 2024.9.13.; 2023.3.28.; 2023.3.20.; 2022.12.13.

3. 북한의 핵무장 위협 실체

북한의 핵무장 위협은 핵무기의 특성상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국방부를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서도 추정치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 표 12 > 북한 핵무장 위협 실체’에서 분석한 것처럼 북한의 핵무장 위협 실체를 실제적 위협과 구조적 위협으로 구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북한 핵무기의 실제적 위협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핵탄두의 수량과 위력이다. 핵탄두는 미사일 등 투발수단과 결합하여 핵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핵무기의 필수적 구성요소다. 핵탄두는 핵물질의 양, 소형화 수준과 전자·금속·재료·광학 등 첨단 기술 등이 결합되어야 제대로 성능이 발휘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 양을 계산하여 핵탄두의 수량을 가늠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한 이후에는 북한이 확보한 핵물질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한 북한이 다양한 투발수단에 장착할 핵탄두의 소형화, 규격화, 표준화 등도 핵능력을 추정할 주요 평가요소였다. 핵무기 소형화는 안전하면서도 전략적 목적으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규격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ore 크기 감소(Boosting, Levitation, Composition, Hollow PIT 등 선진 디자인 기술적용과 개량된 내폭방식 개선), 고폭장약 감소(고폭장약의 성능개선: 압축효율의 향상, 고폭렌즈 구조/형태 변경, 高순도 장약사용), 반사체 두께 감소(반사체와 탬퍼 일체형 디자인 채용), 디자인 최적화(폭발효율, 안전성, 탄두무게, 크기 등), 반사체 두께 및 고폭장약 감소, 차폐 두께 감소 등이 필요하다

고 한다.

< 표 12 > 북한 핵무장 위협 실체

구분		주요 위협
실체적 위협	핵탄두	- 사용 가능한 충분한 핵탄두 보유 - 소형화·표준화로 다종의 무기 탑재
	투발수단	- 다양한 장거리·탄도미사일 보유 - 장기간의 시험 발사로 성능 개량 - 전술무기 탑재 시 위협 확대
	운용부대	- 즉시 운용 가능한 지휘·통제체제 - 1만 명 수준의 전략군 운용
	사용 의지	-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위협 증대 - 북한의 핵무기 의존도 증대
구조적 위협	핵 기반 체제	- 핵물질의 생산의 지속 - 풍부한 우라늄 광산 보유 - 다양한 핵시설 운용
	정전상태	- 군사국가로서 전쟁 의존도 증대 - 한미전력과 의 재래식 전력차 심화
	1인 독재 주요 동력	- 세습 및 우상화 지속 - 주민 통제 및 독재자 존엄 유지
	지역/체제 안보 불안정	- 중러의 북핵 잠재적지지 -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조 지속 - 러시아의 첨단 핵무기 기술 지원

일례로 핵 순항미사일 탄두는 무게100kg, 직경 50-80cm, 20-100kt의 위력을 갖추는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을 추진해온 북한이 주력한 것이 핵탄두 소형화였으며,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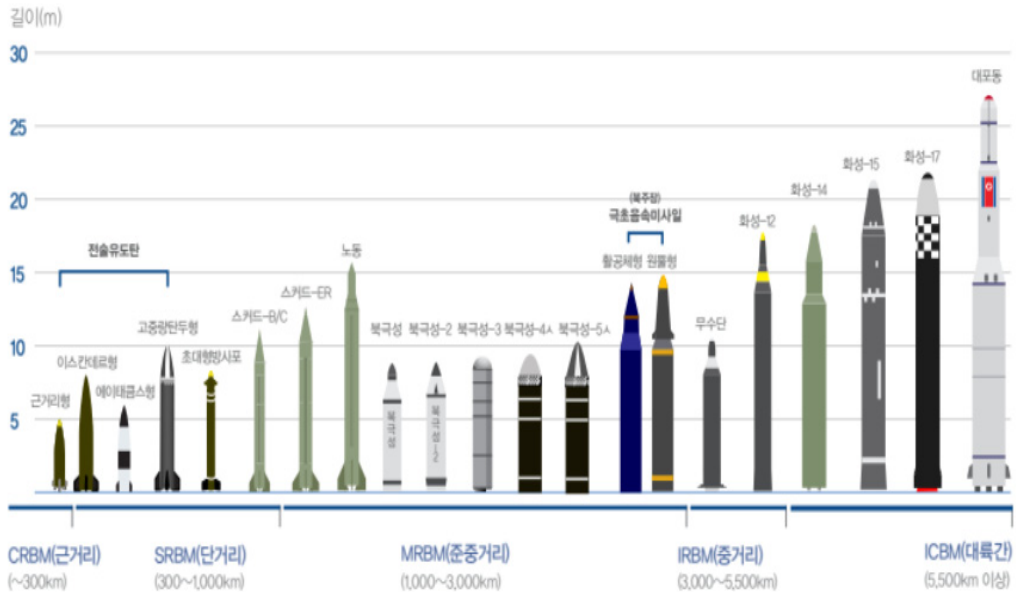
보면 핵탄두 소형화 및 규격화 등 북한이 주장하는 고도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몇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가?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70여 kg을 확보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핵무기 소형화를 언급하며, 정확한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¹²¹⁾ 한편 국내외 연구 기관에서도 2023-4년을 전후하여 다양한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데 SIPRI: 50개, KIDA: 90개, IAEA: 30-50개, ISIS: 45개 등이다.¹²²⁾

둘째, 북한의 핵무장 위협의 실체는 투발수단이 다양하고 그 수량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은 액체추진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노동, 무수단을 작전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 한 주변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2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1980년대 중반에 개발한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작전 배치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개발한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다. 이후 스커드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사거리 5,000km),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4형/화성-15/화성-17형(사거리 10,000-13,000km 이상)을 시험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다. 북한은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을 기반으로 에이태컴스형, 고중량탄두형, 근거리형 등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고, 차륜형·궤도형·철도기동형·잠수함 발사형 등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2022년 12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군에 인도하였다. 향후 북한은 노후화된 전략군의 스커드와

121) 국방부, 위의 책, pp. 29-30.

122) 유관덕, “북한 ‘핵무력’ 위협의 총체적 접근 및 분석: 북한 ‘공화국핵무력정책법’상의 ‘핵무력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8권 제2호, pp. 15-16.

노동 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체추진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및 ICBM 개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잠수함 발사형 전술유도탄(북한판 이스칸데르 파생형)도 개발 중이다.



[그림 9] 북한의 탄도미사일 보유 현황¹²³⁾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인바,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개발이 완료될 경우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¹²⁴⁾ ‘[그림 IV-2] 북한의 탄도미사일 보유 현황’은 위에서 언급한 탄도미사일을 사거리 별로 정리한 것인데, 표준화된 핵탄두 탑재 시 대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3) 국방부, 위의 책, p. 31.

124) 국방부, 앞의 책, pp. 30-31.

셋째, 북한은 오랜 기간 핵무장을 추진해 온 운용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별도의 군종사령부인 전략군은 앞서 언급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으로 13개의 미사일 여단을 편성하였으며, 미사일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략군은 1만여 명의 병력과 100여 기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편성되어 전평시에 운용되고 있으며, 김정은의 직접적인 통제받는다고 할 수 있다.¹²⁵⁾ 미사일총국도 2016년 4월 30일 창설된 이후 2023년 2월 8일 북한군 창군 열병식에서 공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전략군의 역할과 유사하다. 북한군의 각종 미사일 훈련에 이 2개 사령부가 동참하여 훈련하는 것이 자주 식별되고 있다.

넷째, 김정은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사용 의지다. 2차 세계대전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이후 전 세계에서 핵무기 사용 선례가 없는데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그 사용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5년 북한군 창군 열병식에서 ‘핵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지가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가 그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과 생산, 실전배치, 투발수단 능력 향상 증 핵무기 운용교리도 법제화하여 핵무기의 활용성을 확장하였다. 핵무력정책법은 핵무력의 사명(제1장), 구성(제2장), 지휘통제(제3장), 사용 결정의 집행(제4장), 사용원칙(제5장), 사용조건(제6장), 동원태세(제7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적대 세력의 침략과 공격 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억제 실패 시 적대 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 승리를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지만 핵무기의 사용조건에서

125) 국방부, 앞의 책, pp. 26, 29, 334.

①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가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열거함으로써 핵무기의 사용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²⁶⁾

다음으로 북한 핵무장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증대시키는 구조적 위협이다. 첫째, 북한의 핵 기반 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진화될 것이다. 핵물질 기폭장치투발수단의 핵무기 3대 요소는 상호 작용을 하며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도가 높은 핵물질과 정확도가 향상된 기폭장치, 그리고 다양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핵탄두와 투발수단은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추진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김정은은 2022년 12월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핵탄두의 기하급수적인 증대를 지시한 이후 2014년 9월 13일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생산 시설기지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무기급핵물질생산토대를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고 원심분리기의 개별분리 능을 더욱 높이라” 고 독려한바 있다. 유일지배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시는 국가적인 과업으로서 군사국가의 역량이 동원되어 추진됨을 의미한다.

둘째, 한반도 분단의 원인인 정전상태는 남북한의 체제 및 군사력 경쟁을 지속시키고 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대략 3,000여 회 이상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한미 군사력에 대한 재래식 도발의 효과가 반감된 상태에서 비대칭 살상무기,

126) 유판덕, 위의 글, pp. 22-31.

특히 핵무장을 활용한 대남 도발의 의존성이 증대된 상태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도 상당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명목 GNI, 무역총액, 1인당 GNI가 각각 59.8배, 460배, 29.7배에 이르고 있다.¹²⁷⁾ 이러한 경제력의 차이는 국방력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

셋째,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와 세습체제의 핵심적인 동력이 핵무장이다. 김정은 체제는 출범 이후 핵 능력의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이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 억제력 동원태세’와 ‘정면돌파전’을 제시하였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과 2022년 4월 25일에 ‘핵무력의 빠른 발전’ 및 202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주장하면서 대남 전술핵무기 대량생산과 신형 ICBM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강조한바 있다.¹²⁸⁾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핵억지력을 통한 군사력 강화 및 경제난 극복 등 다목적용이면서도 유일영도체제와 안정적인 세습구도의 형성에도 김씨 일가의 중요한 업적이자 체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필수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¹²⁹⁾

마지막으로 지역의 체제와 안보불안정도 북한 핵무장 위협 증대의 직간접적인 압박요인이다. 탈냉전기에 들어와 강대국 간의 대립구도가 완화된 듯 보였으나 중국의 경제적인 급부상에 따른 미중 간의 패권경쟁 심화,

127)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5년 1월15일).

128) 문장권 외, 위의 글, pp. 98-106.; 국방부, 위의 책, p. 21.

129) 이영철, 위의 글, pp. 861-863.; 김동엽, 위의 글, pp. 81-93.

푸틴의 장기 집권에 이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지속, 북한의 핵무장과 중러의 방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북아에는 한미일-북중러 삼각 대립구조가 형성되어 안보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2024년 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빌미로 러시아의 공격을 시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다.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추정컨대) 핵 및 첨단 군사기술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2024년 말~2025년 초에 걸쳐 1만 2,000명 규모의 특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였다. 이는金正은의 핵무장 강화 야욕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북한군의 대량 인명살상조차도 무시하고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과 국제통제체제

북한은 1961년 12월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 이후 화학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는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 무기를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61년 12월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 이후 화학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¹³⁰⁾ 이와 같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능력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에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림 10] 생화학무기 피해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화학무기는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며, 비군사적 민간인 대상의 피해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무기체계다. 화학무기에는 인명을 살상하거나 중독·질식·오염시키는 독해물과 고열을 발생시켜 인명을 살상하는 화염방사소이제가 포함되며, 독해물에는 수포·신경·혈액·질식·최루/구포·무능화 작용제가 있다. 화염방사소이제는 테르미르, 엘렉트론과 같은 소이제 및 600~1400도의 고열을 발생시키는 화염제인 나팜이 있다. 생물

130) 국방부, 위의 책, p. 32.

무기에는 병원성 미생물, 세균, 리케치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페스트, 발진티푸스, 뇌염,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¹³¹⁾



[그림 10] 생화학무기 피해 모습

131) 육군 정보사령부, 『핵에 관한 지식』, 안양: 정보사령부, 2005, pp. 214-217

이러한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에도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통제체제를 구축해왔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는 그 파괴력과 대량 민간 피해 가능성으로 인해,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각국은 국제규범에 따라 무기 개발 및 보유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군축과 비확산 노력은 단순한 무기 억제를 넘어, 테러리즘 및 국제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안보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각국의 안보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자 혹은 지역 차원의 군축 논의는 물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차원의 군축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59년 유엔총회에서는 ‘효과적인 국제통제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을 유엔 군축활동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와 정책을 마련해왔다. 유엔 총회, 안보리, 유엔군축위원회(UNDC), 제네바군축회의(CD), 군축문제연구소(UNIDIR), 군축자문위원회, 지역군축센터, 유엔군축국(DDA) 등은 모두 이러한 국제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 표 13 > 유엔 군축조직과 주요 기능’에 나타나 있다.

< 표 13 > 유엔 군축조직과 주요 기능

주요 조직	주요 기능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축에 관한 일반 원칙 토의 및 결의 - WMD 주요 결의 안보리에 건의(제1위원회)
안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MD 조약 불이행 사례 발생시 의무 이행 촉구 *IAEA에서 '93년과 '02년 북한을 안보리에 회부 - 필요시 특별위원회 설치, 유엔이라크특별위원회 (UNSCOM) 형태의 WMD 특별사찰기구 상설화 논의 중
유엔군축위원회 (UN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군축/안보 관련 주제를 2-3개 선정 집중 토의 - 공식 문서 채택 실패 시 비공식 토의 기록 존안
제네바군축회의 (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바에 설치된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협상기구 - 독립기구이나, 유엔 예산 사용, 보고서 제출
유엔군축문제연구소 (UNID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기관, 군축 관련 독자적 연구, 기여금으로 총당 - 데이터 제공, 군축 참여 촉진, 협상 이니셔티브 제공
군축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무총장 자문기구, 연례보고서 제출 - 특정 현안 집중 토의, UNIDIR 감사 역할 수행
지역군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 설치, 군축 계획 수립/활동 - 제주프로세스 신설, 연례회의 개최
유엔군축국 (D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축기구 기술지원, 전문가그룹 회의 지원, 각종 보고서 발행,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또한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개별 무기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등 전문 국제기구들이 관련 조약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같은 유엔 주도 협약은 생물무기의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은 다자간 합의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 기구는 정기적이고 강제적인 사찰 및 검증 기능을 바탕으로 무기 확산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 표 14 > 군축 및 비확산 관련 국제레짐 현황’에 잘 나타나 있다.

< 표 14 > 군축 및 비확산 관련 국제레짐 현황

구분	핵무기	화학 무기	생물 무기	운반 수단	통상무기
군비관리, 군축, 비확산 조약	NPT, CTBTO, IAEA 보장조치	CWC	BWC	HCO C	CCW, 오타와조약, 소형무기비합법규제, 유엔군비등록제
수출관리체제	NSG/ZAC	AG	AG	MTCR	WA//GCS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 헤이그지침(HCOC), 미사일 확산 국제 감시체제(GCS), 쟁거위원회(ZAC), 호주그룹(AG), 바세나르체제(WA)

그러나 이러한 국제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수의 관련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제사회의 사찰과 검증 체제를 회피함으로써 통제체제의 실효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과 보유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국제통제체제의 지속적인 강화와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V. 결론: 북한의 복합적 안보위협과 우리의 대비방안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북한의 복합적 안보위협의 구체적 실체를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북한의 복합적 안보위협 요소는 무엇인가?
- ② 대량선제기습공격에 하이브리드전이 더해질 가능성은 있는가?
- ③ 북한의 사이버전 및 드론전 능력은 어느 수준인가?
- ④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 ① 북한은 기존의 대량선제기습공격에 하이브리드전 형태를 결합할 것이다.
- ②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은 상시적이며 치명성이 크다.

국제 안보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재래식, WMD, 특수전, 사이버전, 드론전 등이 융합된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북한은 단기간 내 한반도 점령을 목표로, 대규모 특수전 부대와 기계화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장사정포 등 WMD를 적극 활용할 태세이다.

하이브리드전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정보전이 혼합된 형태로, 북한은 드론 및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지휘통제 체계를 교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의 드론 영공 침범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사이버전은 전산망 마비, 정보 해킹, 심리전 등으로 전개되며,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수단이다.

북한은 정규군 128만 명, 예비전력 700만 명 이상을 운용 중이며, 특수전 병력 20만 명은 육·해·공 각축 침투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생물무기 보유 및 운용 가능성 또한 매우 현실적 위협으로, 도시지역 및 군사 핵심시설을 대상으로 대량 살상을 도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위협은 단일 전력이나 전략이 아닌,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전력 운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정교하고 입체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 전략을 대량선제기습공격전과 하이브리드전의 틀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복합적 안보 위협이 단일한 차원이 아닌 다중·입체적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도 전통적 방어개념을 넘어선 종합적 대응체계를 필요로 함을 규명하였다. 특히 사이버전과 드론전, 특수전, WMD 위협 등 비대칭 전력 요소들이 북한의 군사전략에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안보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 위협의 실체를 재래식 전력, 핵무장 능력, 장사정포, 화생방 전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자료를 통해 그 심각성과 복합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공개된 군사자료 및 전문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실제 전략적 의도나 작전 수준의 변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의 사

이버전 운용 방식이나 드론전의 전술적 활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전술 단위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분석의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대응 전략에 대한 대안적 제시보다는 북한의 위협 실체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 제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체계 및 사이버 방호전력 강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고려한 AI 기반 대응체계, 무인전력 운용, 정보융합 기반 C4ISR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심리전, 정보전, 심층 침투전 등 비정규전 양상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취약성 분석과 대응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전략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및 다자 안보협력체제 하에서 북한의 복합위협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억지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북한의 복합적·실체적 안보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략

북한은 현재 재래식 무기에 더하여 핵무기, 생화학무기(WMD), 사이버전, 드론전, 테러 등의 비대칭 및 하이브리드 전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위협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영역을 넘어서며, 국가 안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 무인기 운용, 심리전, 비정규전 등의 비전통 영역은 북한이 상대적 비용 대비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다양한 양상의 비군사적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전력과 미국의 확장억지 전략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구조적 대비는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자원 간의 통합체계가 미흡하고, 군과 민간 간의 역할분담과 공조체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민군 간 통합적 훈련 체계의 부재는 위기 상황에서 통합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비정규전 및 테러에 대한 대비 역량이 정규전 대비체계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북한의 하이브리드 전략에 취약한 구조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정규전 및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규전 대비 체계와 별개로 취급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작전개념 하에서 다루어야 하며,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적응성을 갖춘 민·군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핵 및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전수받고 ICBM을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한국의 3축 체제(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의 실시간 정보자산 공유,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핵추진 잠수함 확보, 미사일 사거리 및 중량 증강, 핵 민방공훈련 및 대피시설 확충 등 다각도의 대응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버전 및 드론전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도 요구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전쟁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사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등 사이버공격 역량을 국가 전략전력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 핵심 기술 개발, 사이버 기반시설의 방어체계 확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드론전에 대비한 안티드론 전략 또한 공격적·방어적 양측면에서 체계화되어야 하며,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안티드론 시스템의 전략적 배치, 드론 운용에 대한 인증·암호화 강화, 조종자 교육 및 규제 시스템의 정비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드론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국제적 공조를 통한 위협 공유체계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력과 핵무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억제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는 달리,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 억제를 위한 전략적 틀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점차 진영화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갈등을 고조시키고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가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략으로 인해 동북아 안보 구조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공고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비군사적 목표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시와 준전시 상황 모두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위협은 단순한 군사 도발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체계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 드론전 등 다양한 위협 유형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은 기존의 군사적 억지 수준을 넘어서, 하이브리드 전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복합적·융합적 전쟁 수행체계로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자료

[단행본]

- 강석승 외, 『북한학 개론』 (서울: 법문사, 1996).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3).
- 권양주, 『북한군사의 이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 김정섭, 『초연결 사회의 탄생』 (서울: 위키미디어, 2019).
- 김종하 외, 『군사혁신과 한국군』 (서울: 북코리아, 2008).
- 김웅진, 『정치학 방법론 서설』 (서울: 명지사, 1992).
- 김원식·이기동,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 분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남상엽 외, 『사물인터넷 개론』 (서울: 상학당, 2015).
- 류길재, “예외국가의 제도화: 군사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파주: 한울, 2001).
- 박명규 외,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 엘리트, 정책, 안정성』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 박성규·길병욱, 『현대 북한의 이해』 (대전: 충남대학교, 2013).
- 박영택, 『북한 김정은체제 이해』 (서울: 북코리아, 2017).
- 박영택 외, 『남북한 군사력의 현재와 미래』 (서울: KIDA Press, 2010).
-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 개혁과 변화』 (서울: 해남, 2002).
- 박휘락, 『한국안보전략연구』 (서울: 법문사, 1993).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 1989).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한국정치학회 엮음, 『21세기 남북한과 미국』 (서울: 삼영사, 2001).

- 우철구 외,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2004).
- 유영구,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1』(과주: 경인문화사, 2020).
- 육군 정보사령부, 『핵에 관한 지식』 (안양: 정보사령부, 2005).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 이무철,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통치리더십』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 이민룡,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4).
-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세종: 산업연구원, 2018).
- 이영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북한의 군부』 (과주: 살림출판사, 2012).
- 이윤걸,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 (서울: 비전원, 2012).
- 이재평 외, 『군사학 개론』 (서울: 법률시대, 2006).
- 이종석, 『조선노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89).
- 이종학, 『한국안보전략연구』 (서울: 박영사, 1992).
- 33)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서울: 필복원, 1999).
- 최석철, 『무기체계@현대·미래전』 (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03).
- 최 성, 『김정일과 현대 북한체제』 (서울: 한국방송출판, 2002).
- 편석준·외, 『왜 지금 드론인가』 (서울: 미래의창, 2015).
- 하종기·외, 『드론의 충격』 (서울: e 비지북스, 2016).
-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서울: 오름, 2008).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서울: 법문사, 1998),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서울: 선인, 2007).
- 후지모토 겐지 저·한유희 역,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서울: 맥스미디어, 2010).

[논문]

- 강동완 외, “북한의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개정 의미와 북한주민들의 인식: 북한내부 문건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 보」 제19집 1호, 2015.
- 강석승, “김일성가의 피의 숙청사,” 「사회과학송도논집」 4(2013. 12).
- 강창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우리의 대응,” 「군사논단」, 제113호 (2023년 봄).
- 고유환,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2011).
- 김강녕,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 「한국과 세계」 제5권 2호, 2023년.
- , “북한의 장사정보의 위협과 한국의 대응,” 「군사논단」, 제113호 (2023년 봄).
- ,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딜레마,” 「통일전략」 제11권 제2호(2011. 7. 30).
-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12호(2012).
- 김경일,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와 중국”, 「통일과 평화」 5집 2호, 2013.
- 김광현, “북한의 제한전 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군사전략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1호(2023).
- 김근식,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당·정·군관계 그리고 권력엘리트,” 「한반도포커스」 2016년 여름호(제36호)
- 김남철, “강대국들의 하이브리드전과 주요 사례분석,” 「한국군사학논총」, 제11집 제2권(2022년 6월).
-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2015).
- 김보미,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 2013.
-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창립과 핵심인재양성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3.
- 김재희, “북한 핵전략 변화에 따른 한국외교의 방향,” 「접경지역통일연구」, 제8권 제2호(2024년).
- 김정기,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국가전략」, 제30권 2호(2024년).

- 김정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4호(2018).
- 김종하 외, “복합적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의 방향,” 「국방연구」, 제53권 제2호(2010년 8월).
- 김주삼, “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한국과 국제사회」 제2권 1호(2018 봄).
- 김주수 외,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과정 비교를 통한 남북관계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2014년 5월.
- 김창희, “김정일 정치리더십의 기능적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17집 4호, 2012.
-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권 3호, 2013.
- 김태준, “통일,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군,” 2014년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 발표문.
- 김현기, “북한의 강성대국화 의미 및 실태,” 「통일안보연구」 제1권 1호, 2001.
- 김황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평가,” 「군사논단」, 제114호(2023년 여름).
- 문계성 외, “이스라엘-하마스 공격전술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 대비 연구,” 「접경지역통일연구」, 제7권 제2호(2023년 겨울).
- 문장권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증강에 대한 연구,” 「통일연구」, 제27권 제2호(2022).
- 박병훈 외, “유럽통합이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 기능주의적 접근과 비전통적 안보영역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3. 8.
- 박요한 외, “김일성 주체사상의 한반도 무력체제 구현과정,” 「아태연구」 제24권 제2호(2017).
- 박영택,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실행 가능성과 전개 양상,”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2011년 겨울.
- , “통일이행기 舊 북한지역의 상황변수 분석,” 「통일전략」 제11권 제4호.
- 박영택·권보경·이정화, “통일시기 접경지역의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역할과 대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유튜브 대담내용을 중심으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2023.

- 박영훈,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적 특징,” 「정치법률연구」 2012-4호(제40호), 2012.
- 박용훈,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 건설방향,” 「군사논단」, 제103호(2020년 가을).
- 박춘우, “4차 산업혁명과 한국 방위산업의 대응 방안,” 「국방과 기술」, 제459호(2017. 5).
- 박형중,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2014년 봄).
- 배영애,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과 변화,” 「통일전략」 제11권 제4호(2011).
- 변학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통일과 평화」 제10집 제2호(2018).
- 서강일 외, “소형드론 위협 사례와 對드론체계 발전방향,”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and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2, March 31, 2023.
- 서동만,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형성,” 「외교안보연구」 2호.
- 서상국 외, “제4차 산업혁명기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시스템 혁신방향: 소요창출을 위한 전투발전체계 혁신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2017년 봄).
- 설현주 외, “4차 산업혁명과 항공무인체계 발전방향,” 「한국군사학논총」, 제6집 제2권(2017년 12월).
- 송은희, “비전통 안보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 송정호, “북한 권력승계의 쟁점과 전망 -사회주의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7권 3호, 2005.
-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권 2호(2017).
- ,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24권 2호(2015. 12).
- 양정훈, “3대 세습의 정당성과 통치유형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0권 제3호(2016. 9).
- 양혜영,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 유산,” 「정치법률연구」 2013-3(제43호).

- 오경섭 외,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KINU 연구총서』 21-11, 2021.
- 오원진,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전장의 모습: 지상전을 중심으로,” 「국방과 기술」, 제471호(2018. 5).
- 유신일, “중국과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와 남북관계,” 「한국동북아논총」 제77호(2015).
- 유영식, “북한 ‘국가주의’ 탐색 - 우리 국가제일주의,” 『장신논단』 vol. 51, no.5(2019).
- 유판덕, “북한 ‘핵무력’ 위협의 총체적 접근 및 분석: 북한 ‘공화국핵무력 정책법’ 상의 ‘핵무력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8권 제2호.
- 유호근, “비전통안보 이슈의 국제정치: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7집 1호.
- 이강경 외,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32집 2호(2024).
- 이근, “정보혁명에 따른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동아시아 신질서: 새로운 도전과 한국의 방안,” 「전략연구」, 2001. 3.
- 이기진 외, “북한 소형드론 위협을 고려한 對드론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제13집 1권, 2024년.
- 이상근,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의 대외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제4호, 2017년(겨울).
- 이선우, “선군정치와 북한식 경제개혁: 긴장된 병행의 논리,” 「현대북한연구」 12권 1호, 2009.
- 이성욱, “드론과 UAM 산업의 전망,” AUTO Journal, 2021. 07.
- 이영철,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외전략의 공세적 변화,”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5 No.3(2024).
- 이장욱,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주요 이슈와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외교」, 제148호(2024. 1).
- 이종규, “북한 통치체제의 본질적 특성: 김정일의 체제 운영기법을 중심으로,” 「북한조사연구」 제6권 1호, 2002.
- 이창욱,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주요 이슈와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외교」, 제148호(2024. 1).

-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2003).
- 이호령, “김정은 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KIDA Brief* no. 2021-안보-4, 2021.7.30.
- 임금순, ‘미국의 국방기술정책 변화에 관한 고찰’, 『국방논단』, 제35호, 1996년 가을.
- 임종인, “사이버전 현황과 대응방안,” 「외교」, 제144호(2023.1).
- 임철균 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구상 연구,”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23호(2023.11).
- 장순배, “한국군 드론 운영 발전방향 연구,”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6, No. 2, 2024.
- 장용진 외, “군사기술 네트워크가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경영대학 연구서」 8월호, 2021년.
- 정동, “사이버전 양상과 북한의 위협,” 「인문사회21」, 제13권 6호(2022).
- 정민섭 외,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 비교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2018.
- 정성상,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 후계자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33집 1호, 2007.
-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 「세종정책연구」 제6권 1호, 2010.
- ,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 , “김정은 체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평가.” 「정세와 정책」 2013년 5월호.
- , “북한 군사국방지도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과제,” 「정세와 정책」 2011년 8월호.
- 정연봉, “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 「한국국가전략」, 제21호(2023. 3).
- 정일영, “한국전쟁기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2호, 2014.
- , “한국전쟁의 종결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6권 제2호, 2013.

- 조봉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2012.
- 조성열,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 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2013).
- 전중순,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 합동개념의 변화,” 『합동군사연구』 제19호.
- 정연봉, “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 「한국국가전략」, 제21호(2023. 3).
- 정춘일,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4.0,” 「전략연구」, 통권 제72호(2017. 7).
- 진미리 외, “UAV 대상 AI 보안 공격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제1집(2024).
- 진 제, “강성대국 건설론과 북한경제 현황,” 「북한학연구」 제5권 제1호, 2009.
- 최근대 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대응: 하이브리드전의 이론과 적용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54집(2022).
- 최영근 외, “북핵 제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문제점 검토: 전략적 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12집 제3권(2023년 9월 30일).
- 한기범, “북한의 제8차 당대회 평가(Ⅱ)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 북한연구소 INKS 논평, 2021.1.10.
- 한두봉 외, “식량안보 및 에너지안보 수준에 따른 국가 유형 분석: 식량 및 에너지 자급률을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제53권 제4호.
- 한주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본 우리 군의 기습 대응 방안,” 「한국국가전략」, 제25호(2024. 7).
- 함택영, “주체사상과 북한의 국방정책: 자위노선의 업적 및 한계,” 양재인 외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서울: 경남대학교, 1998).
- 함형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 및 전망: 러·북 군사기술 협력이 미칠 영향,” 「한국국가전략」, 제24호(2024. 2).
-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2014).

2. 외국 자료

- Barry Buzan, Ole Waver,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es, 1998).
- Desmond Ball and Jeffrey Richelson, *Strategic Nuclear Targetting*(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 Frank-Nachmias 외,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New York: Martin's Press, 1992).
- Frank G. Hoffman,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Virginia: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 George Friedman·Meredith Friedman, 권재상 역, 『전쟁의 미래』(서울: 자작, 2001).
- John Baylis,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 하영선 외 옮김,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서울: 을유문화사, 2009).
-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Random House, 1979).
-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New Jersey: Prentice-Hall, Inc.).
- 마틴 반 클레벨트; 이동욱 역, 『과학기술과 전쟁』(서울: 황금알, 2006).
- Mazarr J. Michael, etc., *The U.S Department of Defense's Planning Process: Components and Challenges*(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19).

[논문]

- Alastair Iain Johnston, "China's new "old thinking" ,"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3(Winter 1995/6).
- Bennett, Bruce W.,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 Office of External Affairs*(January, 2014).
- Cossa, Ralph A., "North Korean Regime Change," *Pacific Forum CSIS*, Number 90(Dec. 16, 2013).
- Gompert, David C., "North Korea: Preparing for the End,"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ume: 55(June-July, 2013).

Getty James L. Schoff, “Cooperate to Contain North Korea,” (May 1, 2013).
Liberthal, Kenneth and Wang Ji 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No.4 (March, 2012).

Robert M. Gates, “A Balanced Strategy,”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9.

3. 북한 자료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철학연구소, 1985).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노동신문」

『김정일 노작집』

『조선말대사전』

『조선중앙연감』

ABSTRACT

A Research on North Korea's Complex Military Threats and Security Preparedness in the 21st Century

Doctoral Thesis of Political Science
Daejin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s, Society, and Psychology Studies
Graduate School
Kwon ChanJoo

The key theme of this study is North Korea's increasingly serious complex threats, such as conventional weapons and nuclear weapons, and, on the contrary, our security measures.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intensifying in a situation where disputes such as the Russia-Ukraine war, Israel-Hamas/Hezbollah war are frequent, and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tinues. North Korea adheres to its 'mass preemptive attack strategy' in terms of military strategy for enemy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likely to threaten our security by using 'hybrid warfare strategy' with drone warfare and cyber warfare. This researcher analyzed North Korea's complex threats using North Korea's mass preemptive attack strategy and the hybrid warfare strategy used by Hamas and Hezbollah against Israel as a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North Korea's primary war strategy is the mass preemptive strike strategy, which involves launching a preemptive surprise attack on the front and rear by mobilizing all forces prior to US military support. This means that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a short end, will be occupied within 30 days, or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 occupied on a limited basis. To this end,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large-scale special warfare units for WMD strike capabilities, mechanized, synchronized, lightened forces, and rear penetration. Also, hybrid warfare refers to a war in which the enemy combines all forces at a specific time and simultaneously performs different types of battles to achieve the goal,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war or not, and intensively attacks the weaknesses of the side with an unpredictable strategy.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hybrid warfare using conventional and WMD/special warfare forces in North Korea, which will be capable of provocations in various ways, such as normal terrorism using irregular warfare forces and domestic spies, destruction of major facilities, kidnapping and killing of factors, full-time attacks on South Korea using WMD, attacks on normal times using WMD, attacks on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by the government or military through hacking, or large-scale military information leakage.

At the same time, as factors influencing the military secto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hreat of drone and cyber warfare increas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re expanding. Non-traditional security is a security threat that differentiates or emerges from 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politics, military, and

diplomacy, mainly in the fields of society, humans (human rights), economy, food, energy, environment, terrorism, and cyber. This phenomenon is being promoted as we ente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is characterized by global, urgent, traditional deformation, qualitative change, and uncertainty. Cyber warfare means the spread of the battlefield into cyberspace, where cyber threats are deployed in a wide range of attacks at low cost, and are characterized by difficulty in tracking due to the easy destruction or flight of evidence. North Korea is also committed to strengthening its cyber warfare capabilities and will seek various sabotage measures to undermine its war capabilities by targeting important state and military command and communication systems in peacetime. It will demonstrate a combination of cyberattacks in the form of internet hackers in third countries, virus dissemination, hacking of confidential data, attempts to paralyze the national network of financial/transportation/logistics/communications, and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form of propaganda and reverse information leakage by preempting the mass media. Drone warfare refers to the multipurpose operation of drones with various forms and performances during wartime. Drones are also being used as a major tool for North Korea's strategy against the South. North Korean drones penetrated into Seoul's airspace in December 2022 and exposed serious security risks.

Since the division, the threat of Nor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force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and it is using excessive force and equipment to the extent that it severely

disrupts the lives and economy of North Koreans. Despite economic difficultie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s military might remains threatening, and the army has 15 legions, 84 divisions, and 117 brigades with 1.28 million regular troops. North Korea also has missiles and long-range artillery capabilities that are capable of striking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we will carry out extensive attacks on the Korean government, military command, U.S. military bases, major airports, and ports, as well as pray for our troops to annihilate and neutralize their will to war. Additionally, more than 200,000 North Korean special forces are anticipated to enter the ground using underground caves and ridges. From a military and security perspective, it is challenging to respond to North Korea's threats of nuclear weapons and mass destruction. North Korea can use these weapons systems as a threat, a negotiated termination, or as a last resort in the event of a survival threat after achieving an attack goal, and it will use aircraft or ballistic missiles as a strategy to neutralize our core military facilities. In addition, about 2,500 to 5,000 tons of chemical agents are stored in dispersed facilities, and biological weapons such as anthrax, smallpox, and cholera are known to be cultivated and produced on their own.

South Korea's security is always exposed to North Korea's conventional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errorism, and irregular warfare. If North Korea launches an attack on hybrid warfare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t is revealed that it is vulnerable to hybrid warfare due to insufficient integration of the

state's resources and insufficient integrated training between the civilian and milita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North Korea's irregular warfare and terrorism separately from regular warfare in terms of military security, and to continuously strengthen its capacity to prepare for irregular warfare and terrorism.

*Keywords: mass pre-emptive strike strategy, hybrid warfare, cyber warfare, drone warfare, Conventional threats, WMD threat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